



여론조사꽃 제16차 정례여론조사 **ARS+WEB** 보고서

www.flowerresearch.com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ARS

보고서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국정지표, 국정현안

국정지표

정당지도
국정운영 평가

국정현안

공정인가 탄압인가
순방의 기억
대통령 배우자만의 순방일정
TBS 예산 지원 중단
추모 열기 축소 의혹
언론이 할 일
유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여론조사 꽃은 ‘이태원 참사’를 지명이 들어가지 않는 ‘10.29 참사’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2022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5.9% [총 통화시도 17,033명]
조사기간	2022년 11월 20일 ~ 11월 2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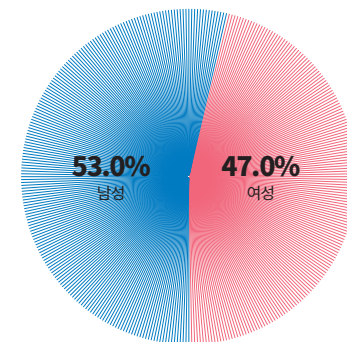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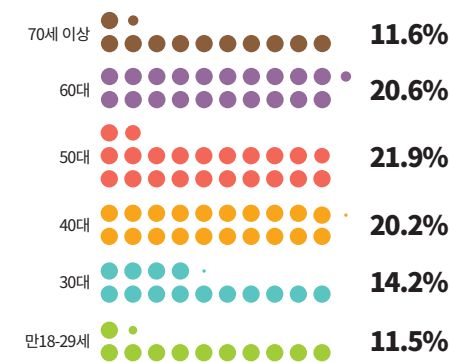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
성별	남성	530	53.0	495	49.5	0.93
	여성	470	47.0	505	50.5	1.07
연령	만18~29세	115	11.5	167	16.7	1.45
	30대	142	14.2	151	15.1	1.06
	40대	202	20.2	184	18.4	0.91
	50대	219	21.9	196	19.6	0.89
	60대	206	20.6	166	16.6	0.81
	70세 이상	116	11.6	136	13.6	1.17
지역	서울	203	20.3	187	18.7	0.92
	인천·경기	313	31.3	318	31.8	1.02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6	10.6	0.99
	광주·전라	109	10.9	96	9.6	0.88
	대구·경북	91	9.1	98	9.8	1.08
	부산·울산·경남	130	13.0	151	15.1	1.16
	강원·제주	47	4.7	44	4.4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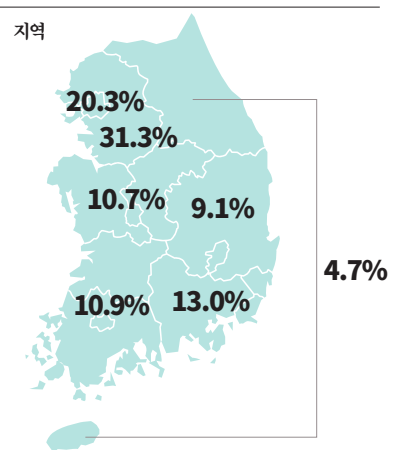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맞음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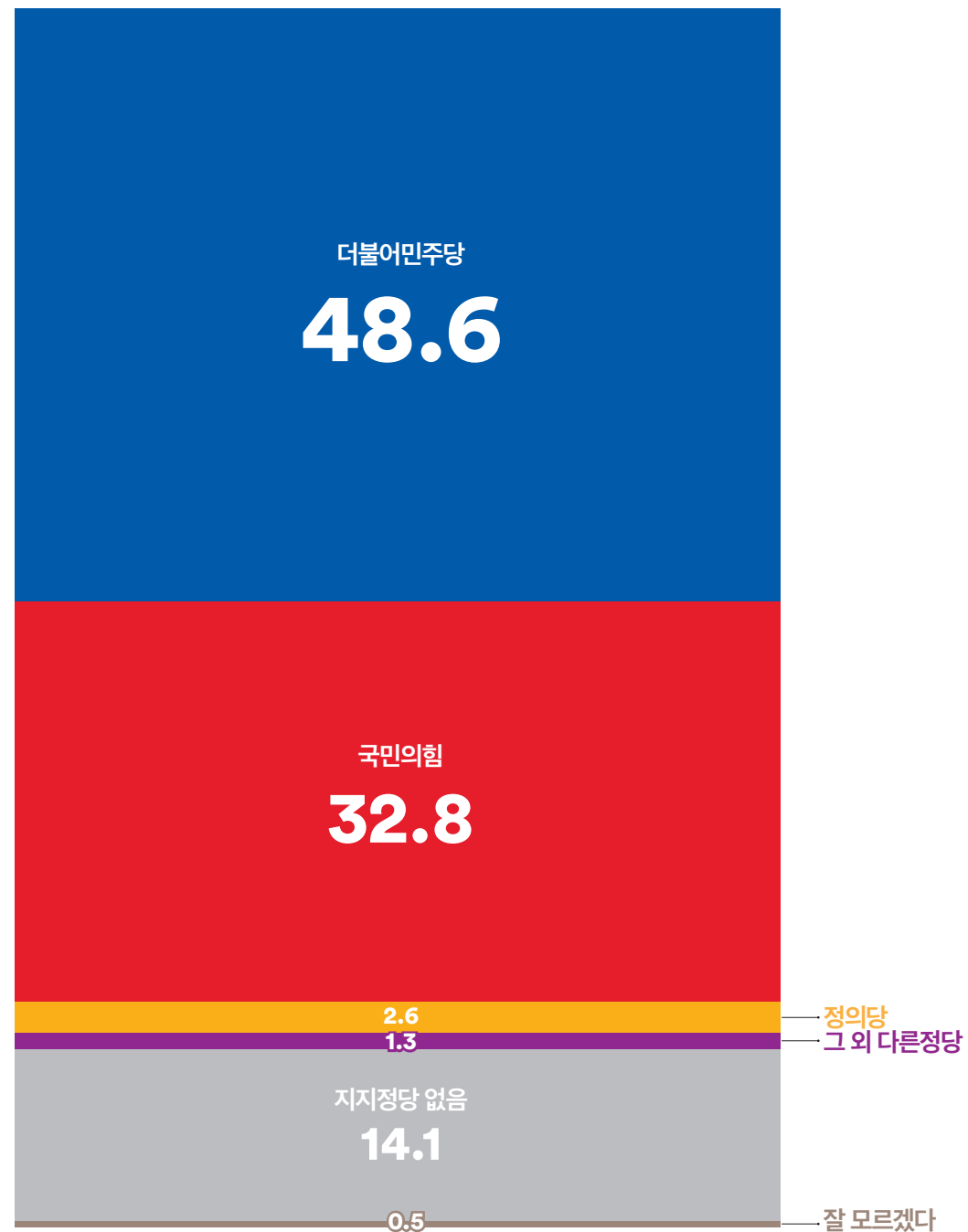
결맞음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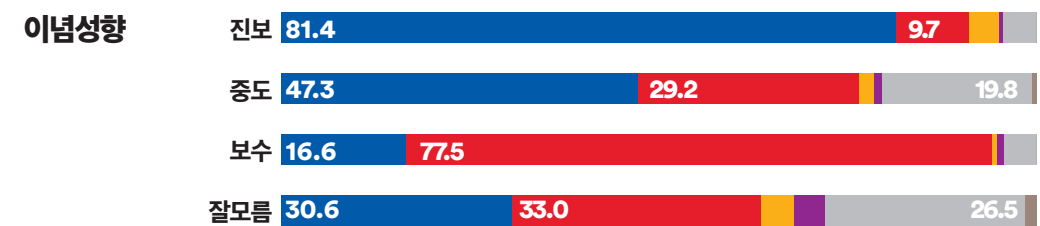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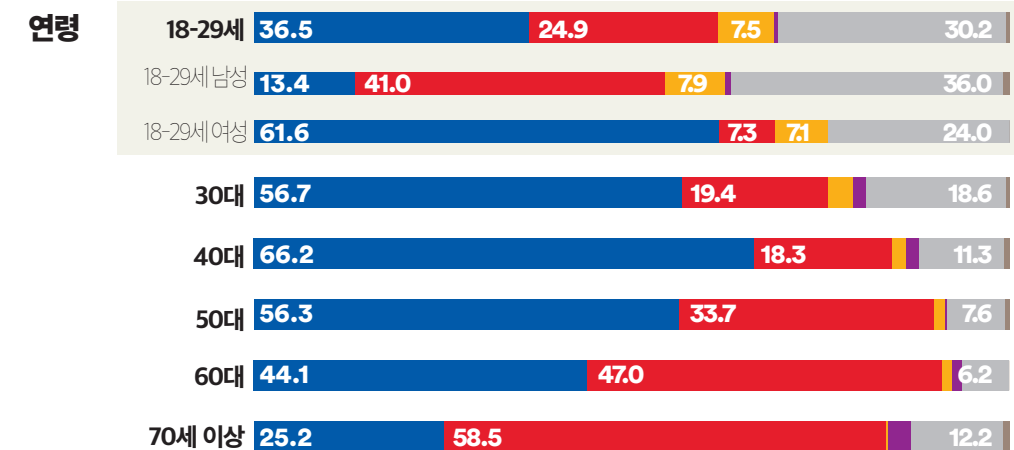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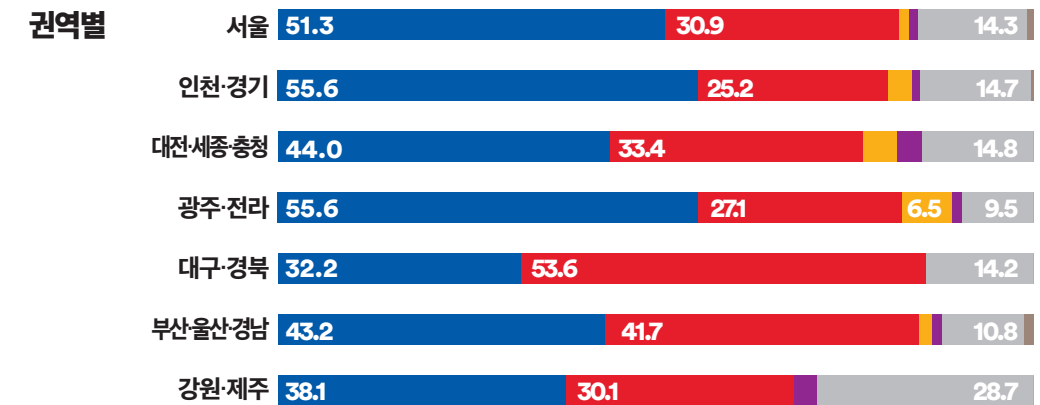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지지하거나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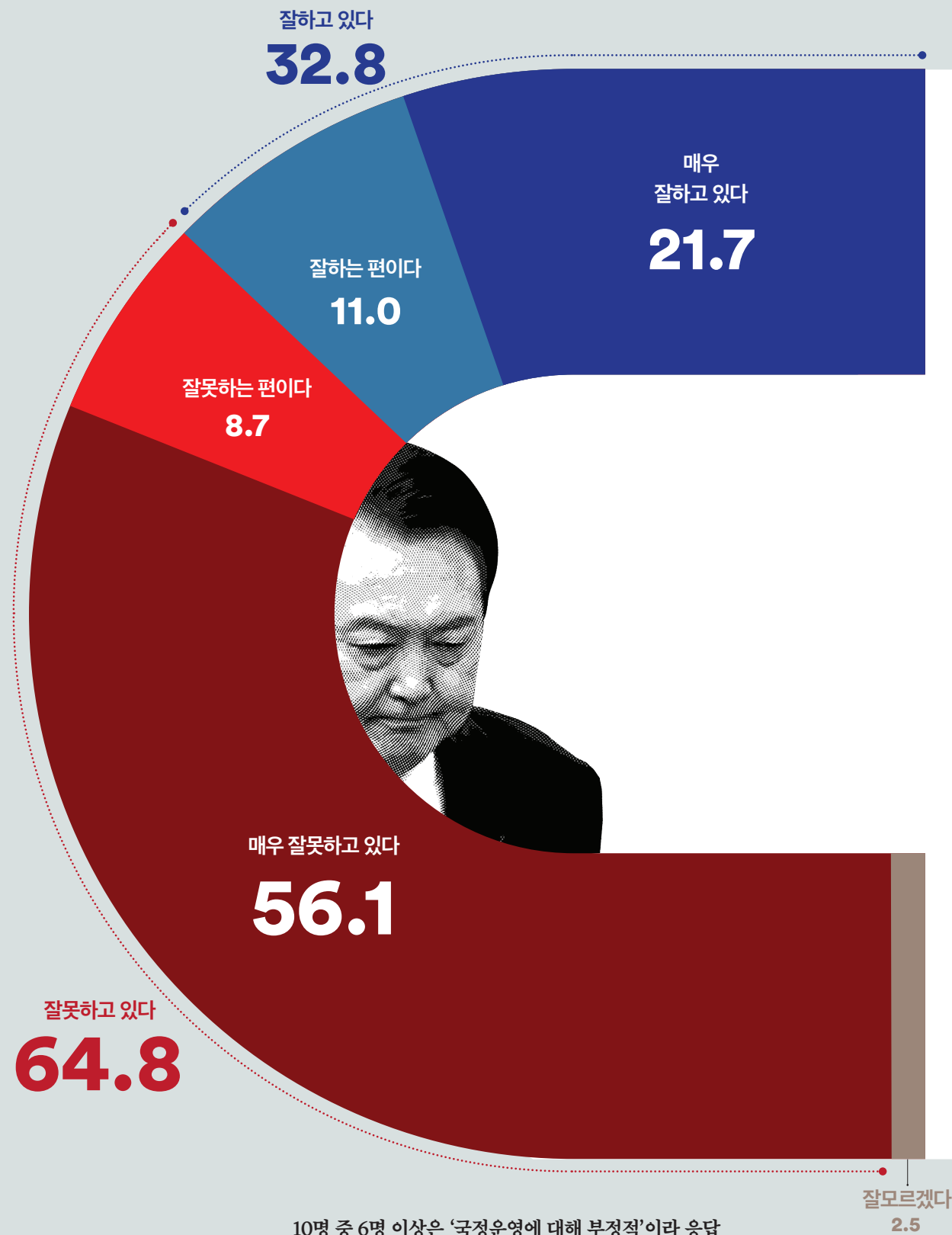
지난ARS 조사(11월 13일~14일) 대비 더불어민주당 3.6%p 증가, 국민의힘 3.0%p 감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우세
 30대·40대·50대는 더불어민주당, 70세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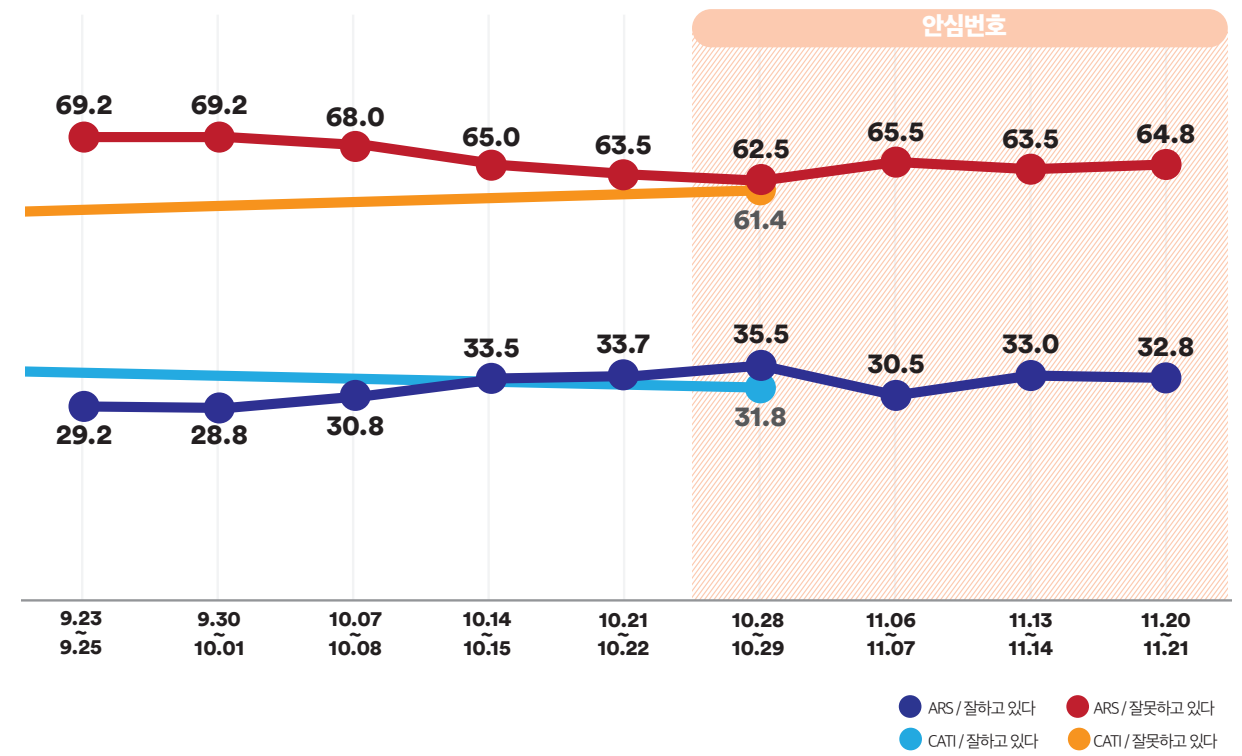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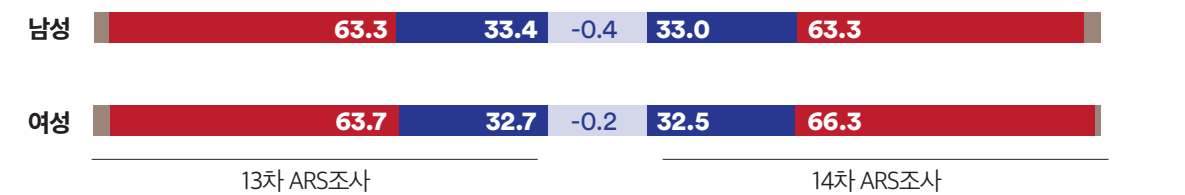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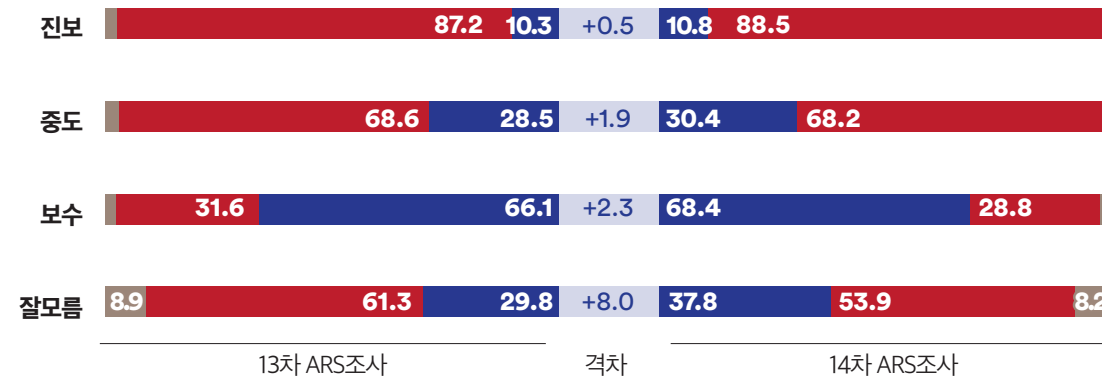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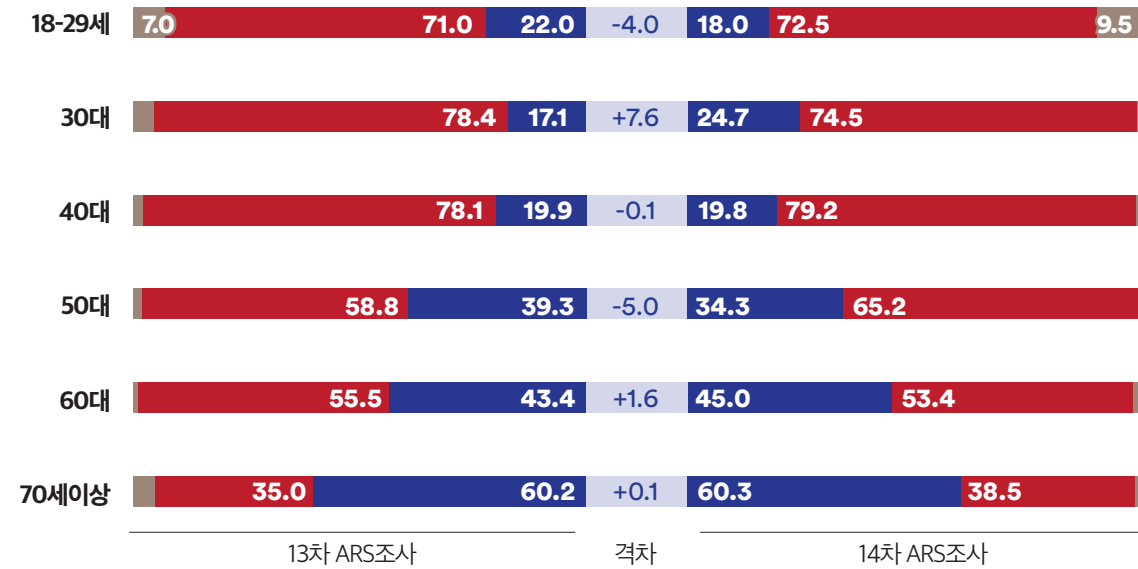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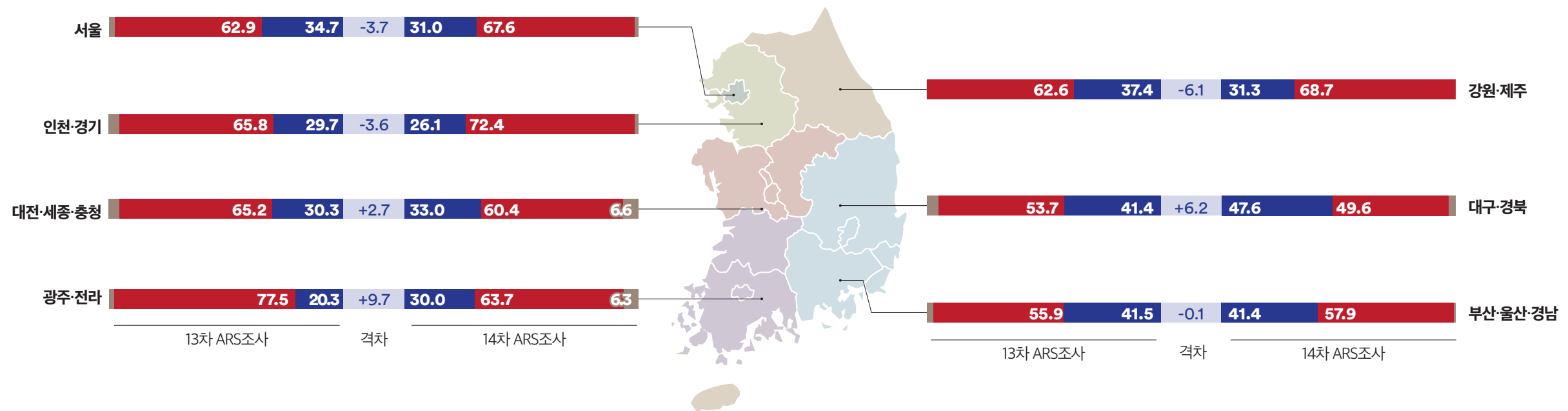
이념성향



연령대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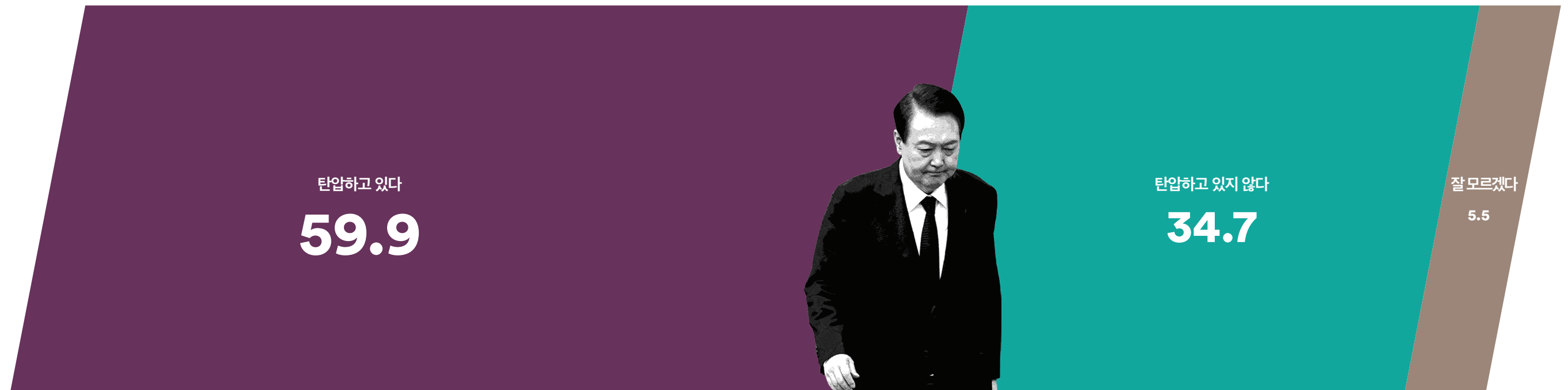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국정현안

공정인가 탄압인가

Q. 윤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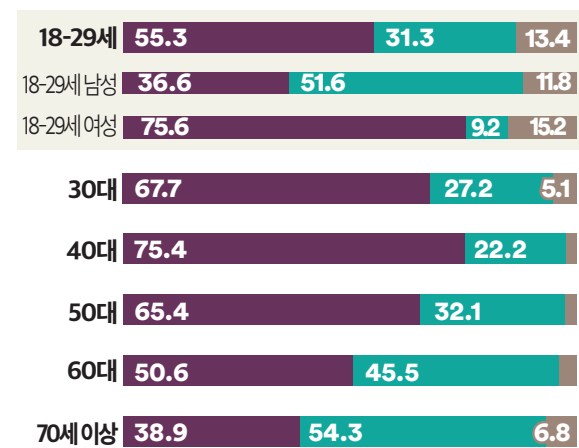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는 '탄압 하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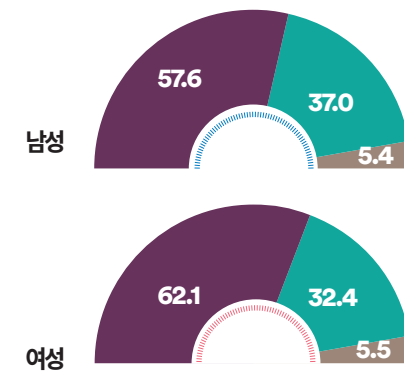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권역에서 '탄압 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

남녀 모두 '탄압 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남성 대비 여성이 4.5%p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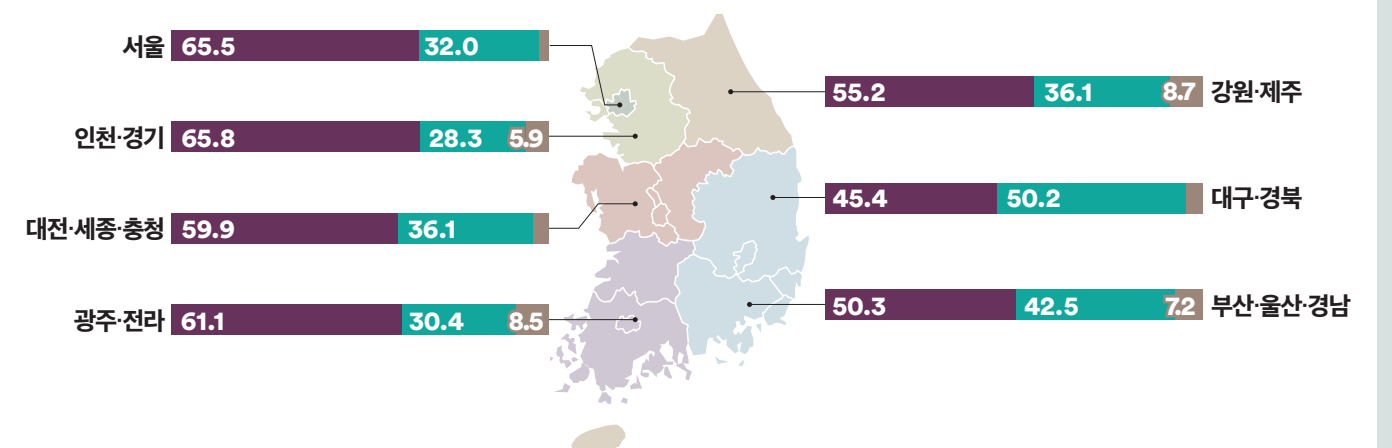
연령



성별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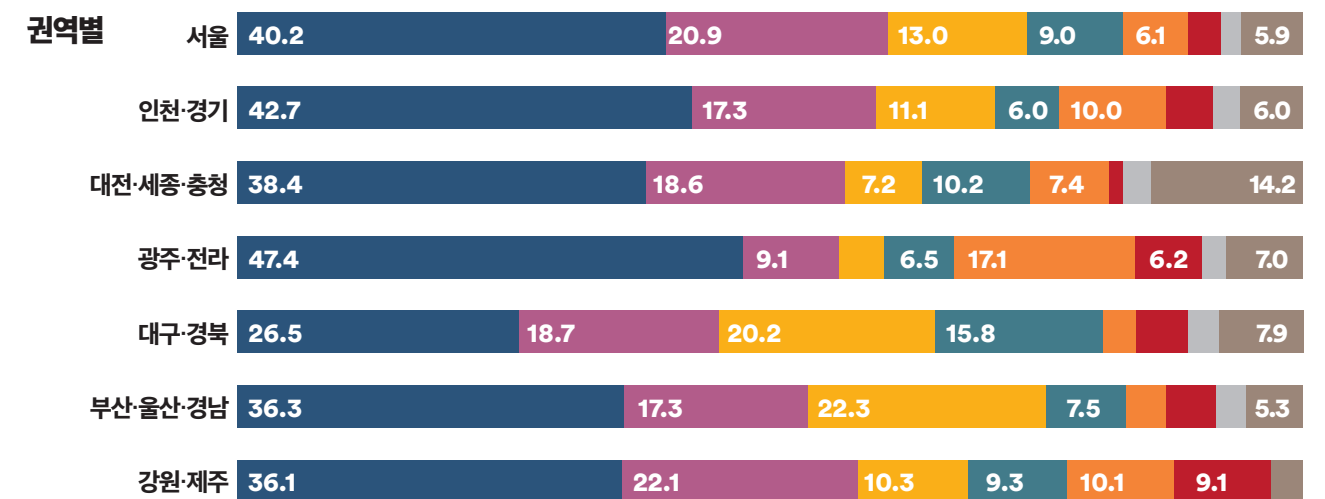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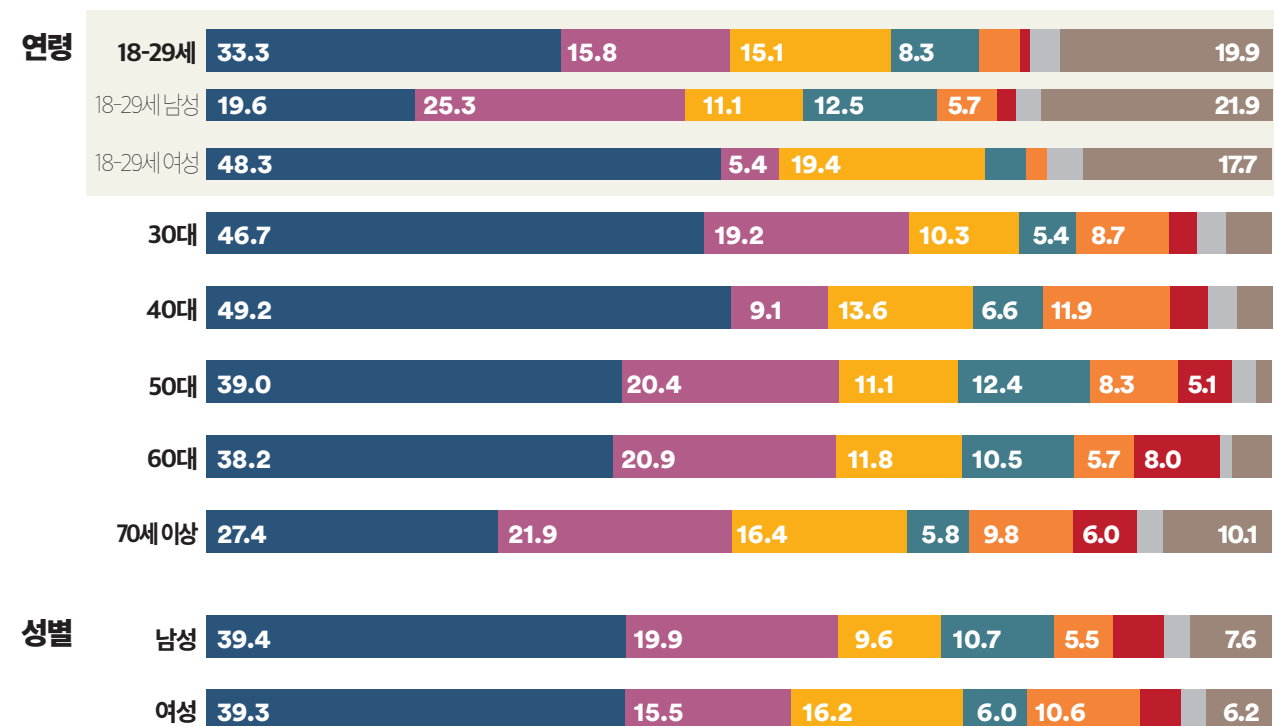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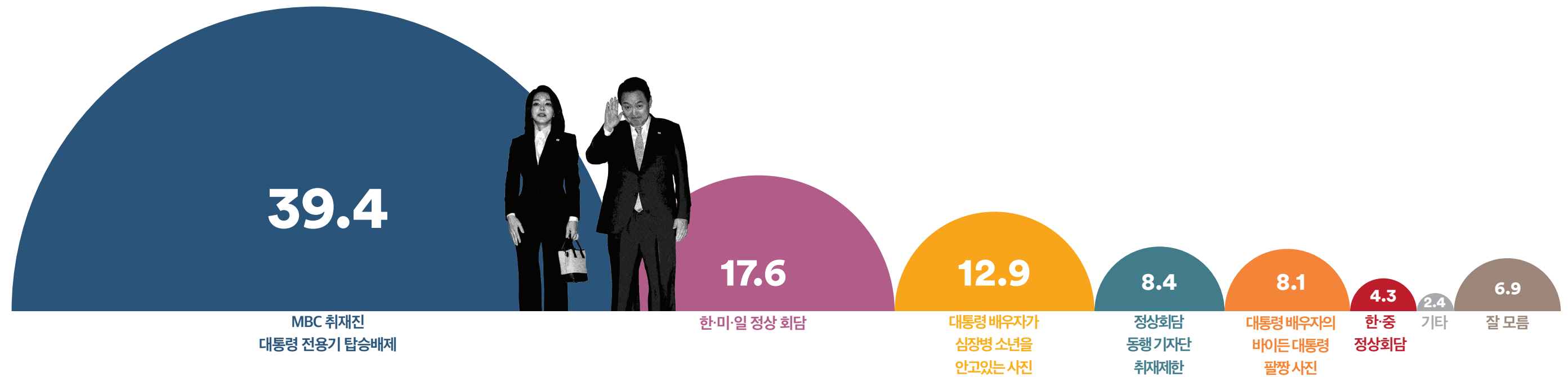
탄압하고 있다 탄압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국정현안

순방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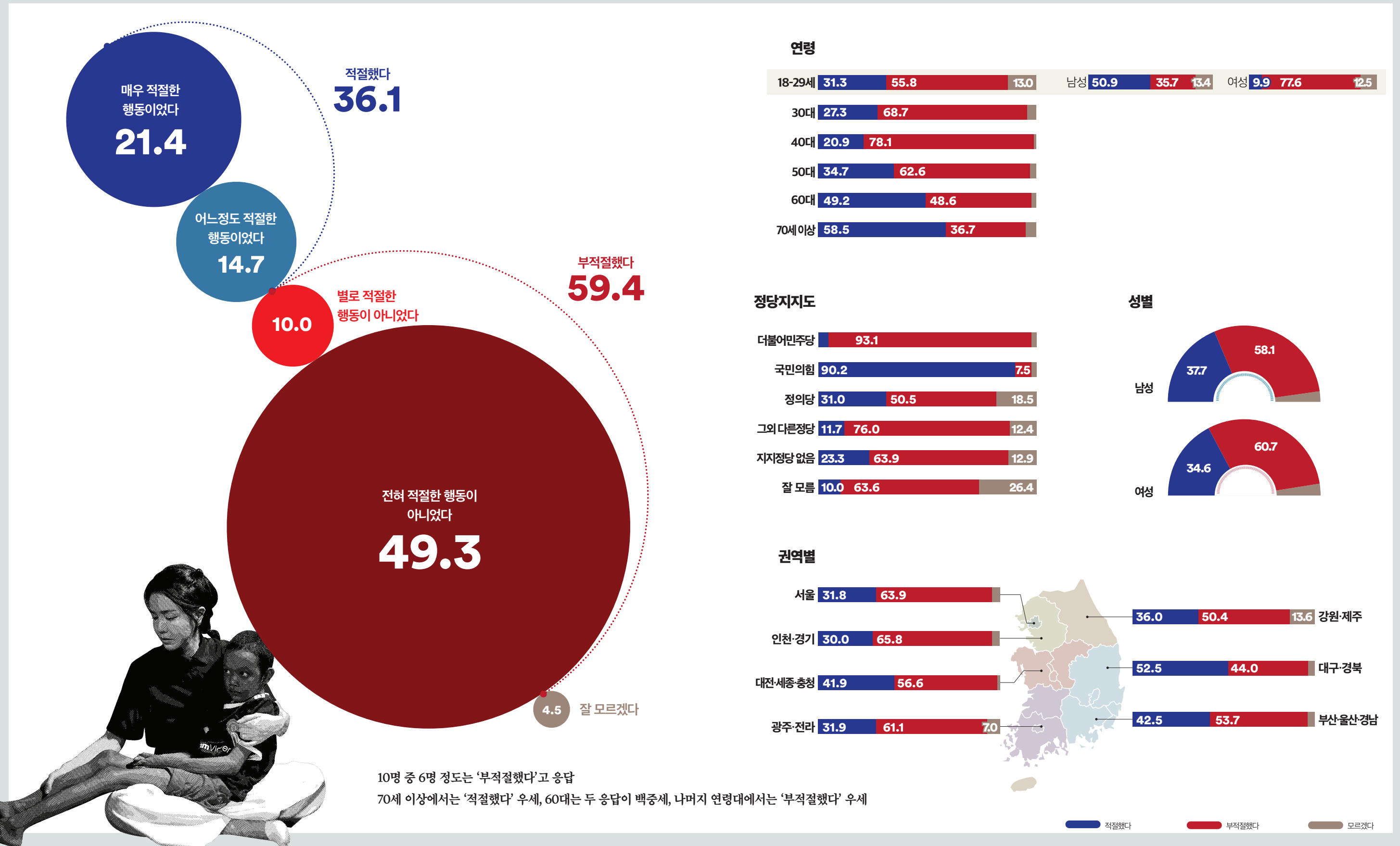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아세안·G20 정상회담 참가 후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국정현안

대통령 배우자만의 순방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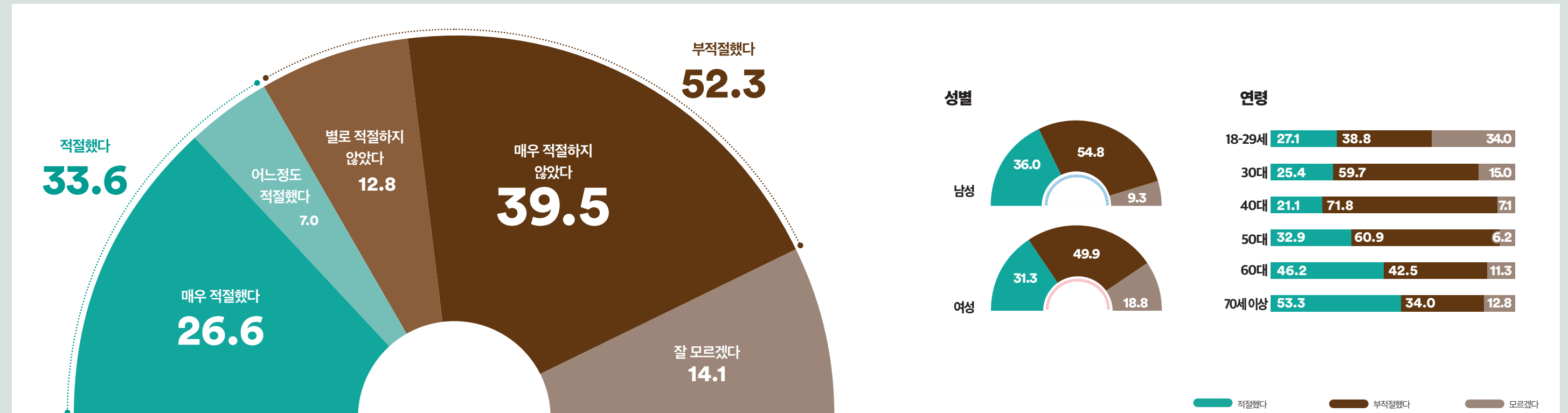
Q. 대통령 배우자는 주최국이 준비한 배우자 참여 프로그램에 다수 불참하고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독자적인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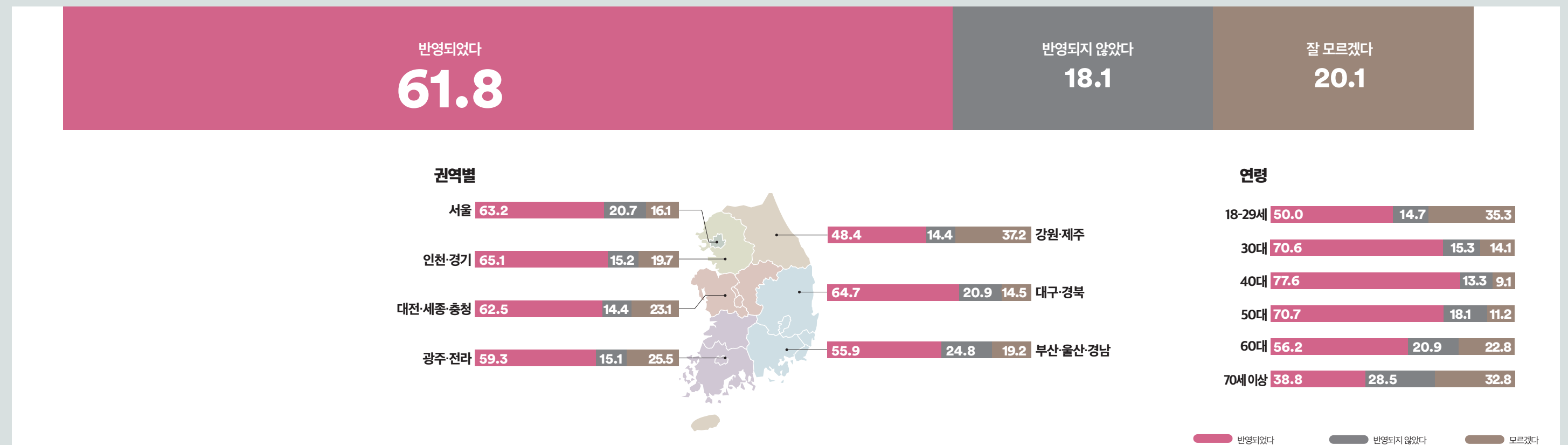
국정현안

TBS 예산 지원 중단

Q. 지난 15일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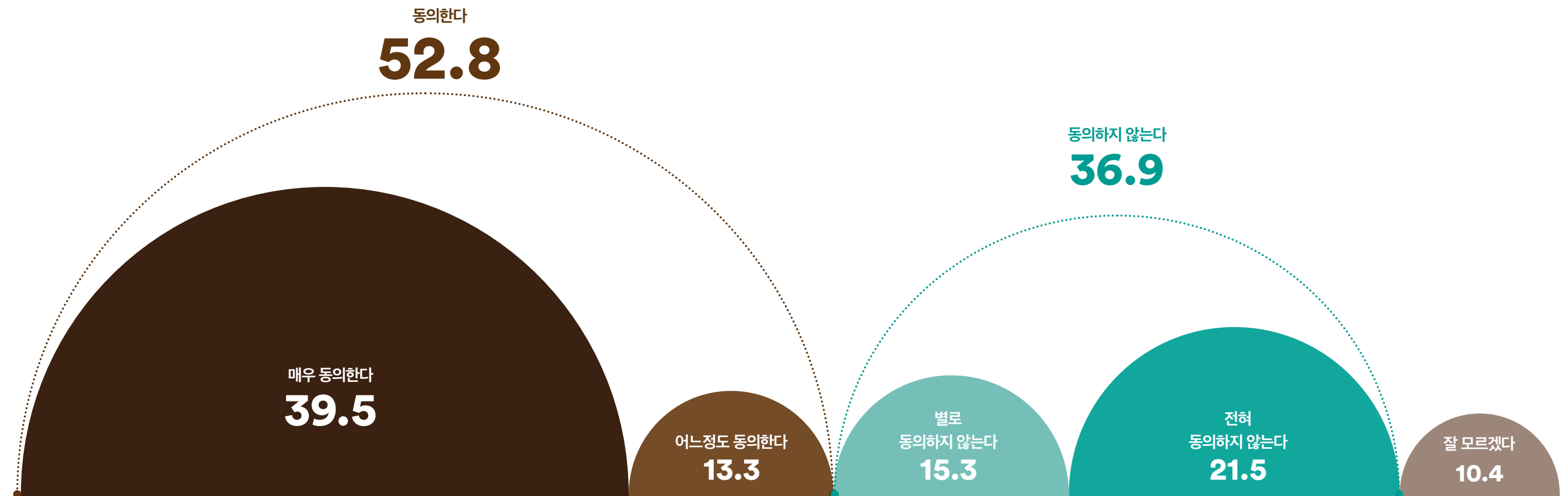
Q.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중단 결정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29 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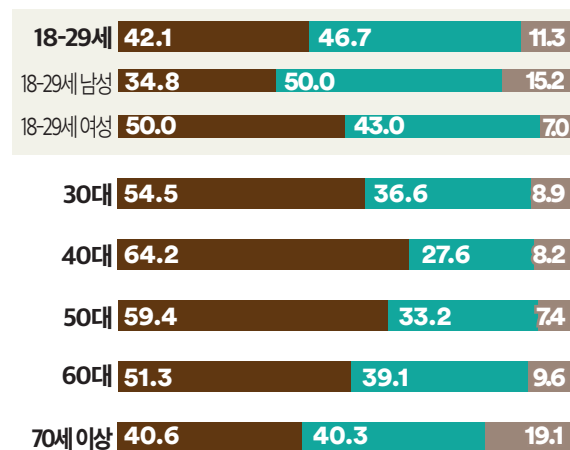
추모 열기 축소 의혹

Q. '윤 정부가 10.29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추모 열기를 가급적 낮추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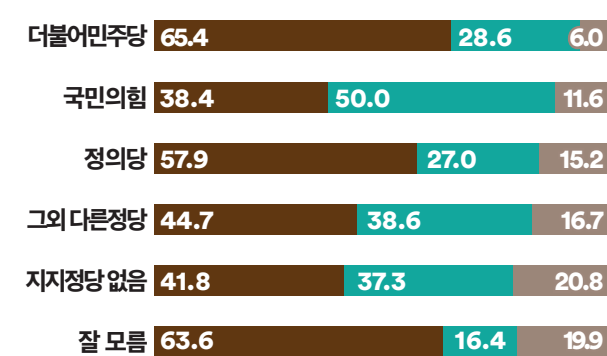


10명 중 5명 이상은 '윤 정부가 국민들의 추모 열기를 가급적 낮추려고 한다'고 응답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동의한다' 우세,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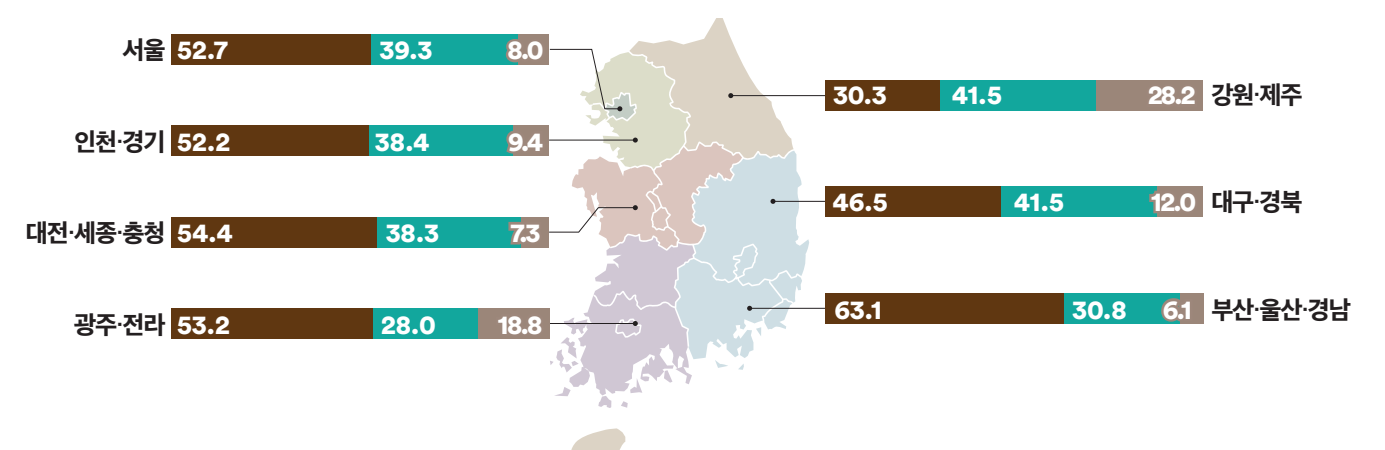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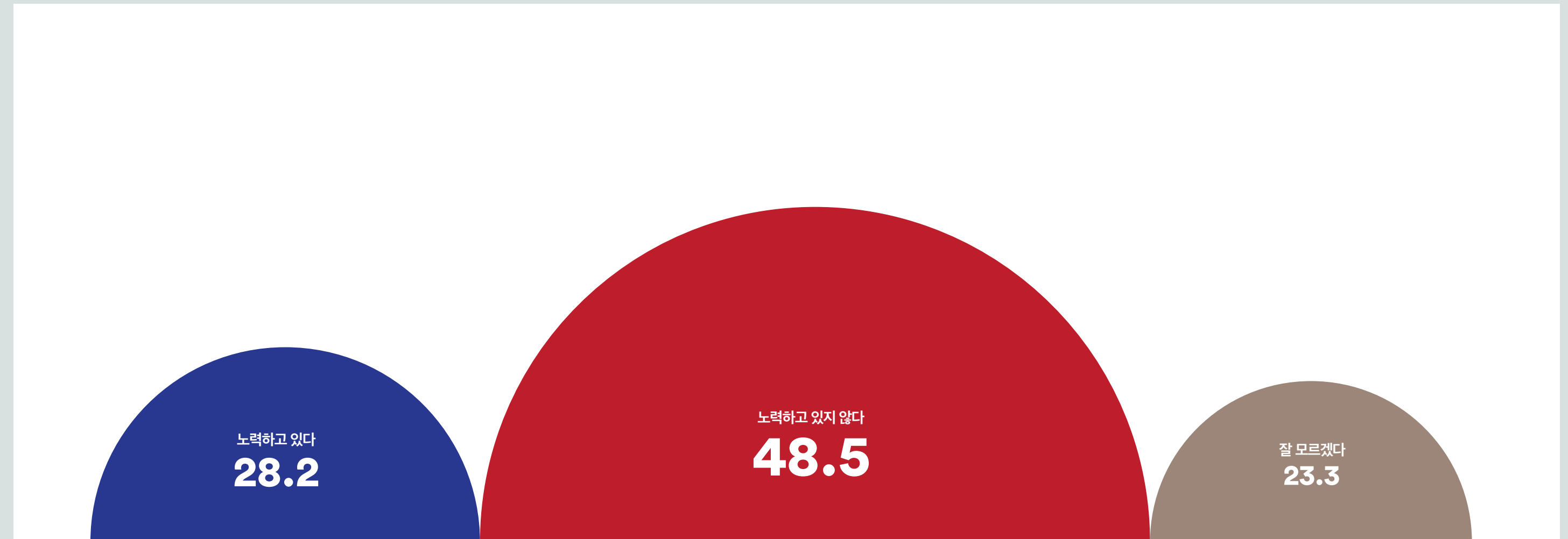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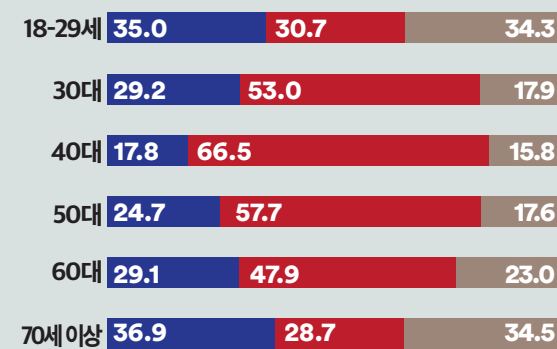
10.29 참사

언론이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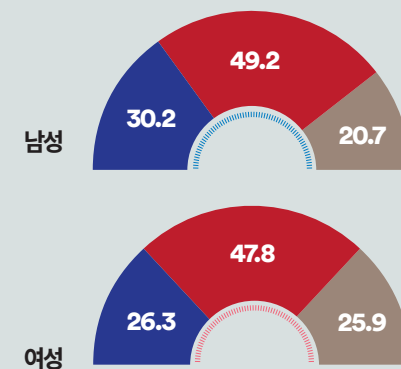
Q. 국내 언론이 10.29 참사 희생자의 사연이나 유가족의 소식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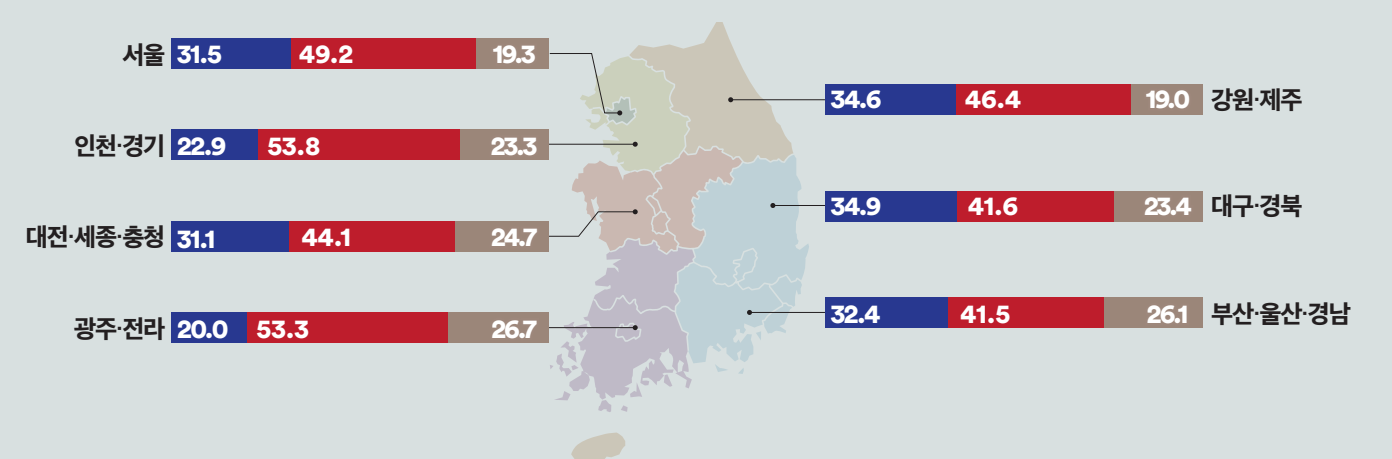
연령



성별



권역별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10.29 참사

유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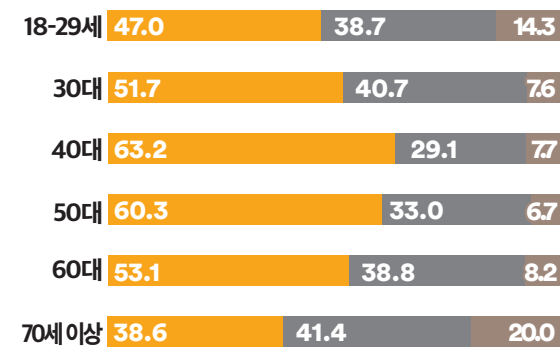
Q. 10.29 참사 희생자의 영정과 명단을 유가족 동의 하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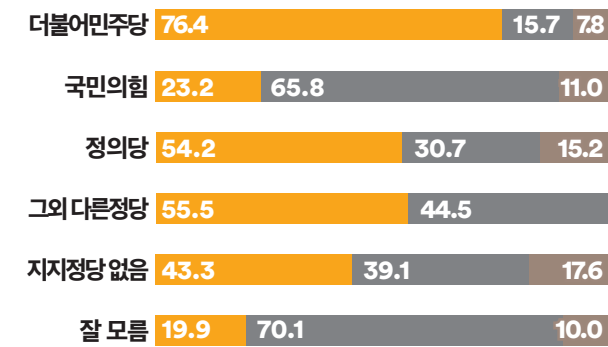
반대한다
36.5

잘 모르겠다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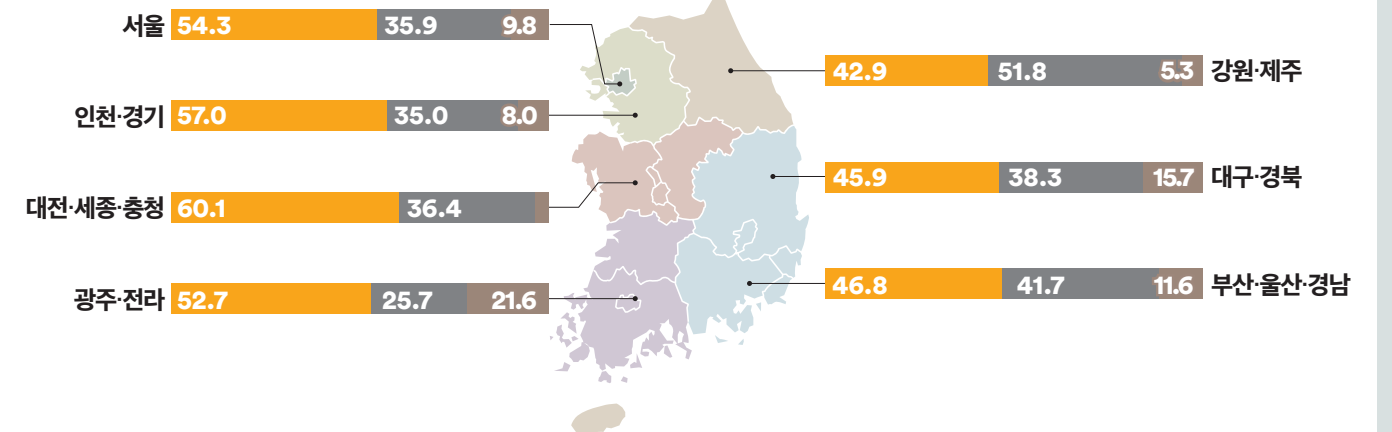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WEB

보고서

10.29참사 대응: 무속의 느낌

대응: 유가족 지원

대응: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규명: 참사 책임자

국정쇄신 여당의 역할

국정운영 영향 요인

대한민국의 위상

대통령의 관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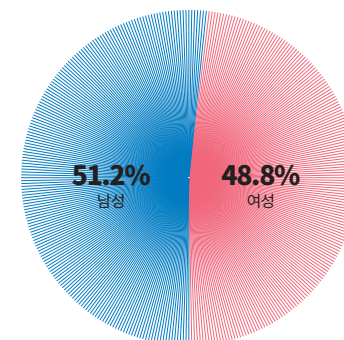
오픈문항 참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

WEB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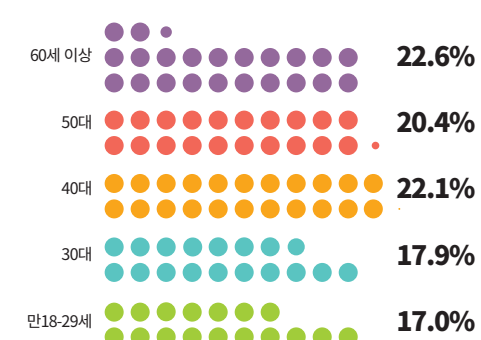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67명
표본오차	±3.0%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2022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네티포인트 온라인 회원 가입 등으로 구축된 온라인 패널 중 성·연령대·지역 별 무작위 추출 실시한 인터넷 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86.4% [총 연결시도 1,235명]
조사기간	2022년 11월 10일 ~ 11월 1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67	100.0%	1,067	100.0%	1.00
성별		남성	546	51.2	529	49.6	0.97
		여성	521	48.8	538	50.4	1.03
연령		만18-29세	181	17.0	180	16.9	0.99
		30대	191	17.9	160	15.0	0.84
		40대	236	22.1	196	18.4	0.83
		50대	218	20.4	208	19.5	0.95
		60세이상	241	22.6	323	30.3	1.34
지역		서울	233	21.8	200	18.7	0.86
		인천경기	347	32.5	340	31.9	0.98
		대전 세종 충청	100	9.4	113	10.6	1.13
		광주 전남	96	9.0	105	9.8	1.09
		대구 경북	98	9.2	104	9.7	1.06
		부산 울산 경남	154	14.4	159	14.9	1.03
		강원 제주	39	3.7	46	4.3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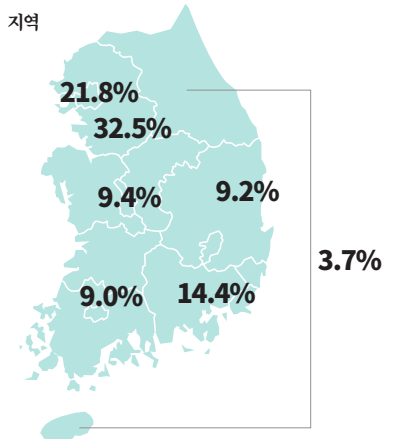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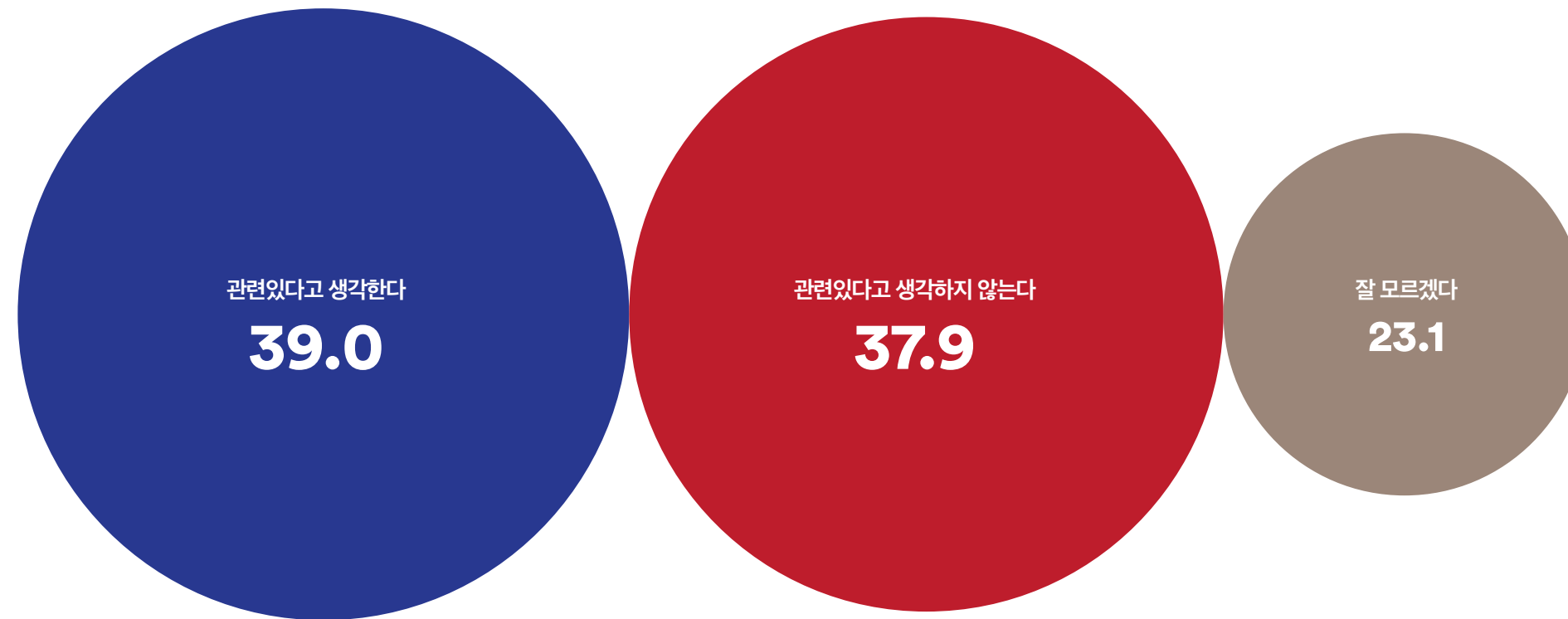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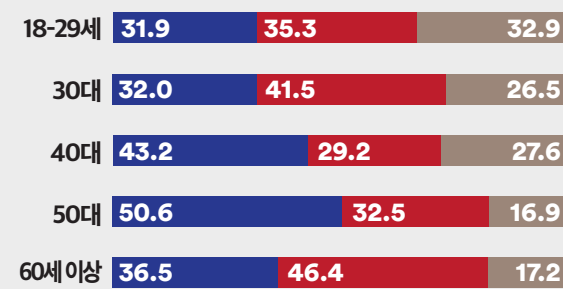
10.29 참사

대응: 무속의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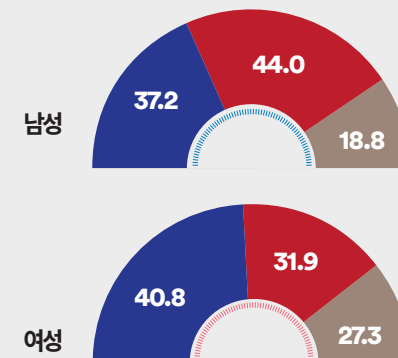
Q. 정부가 지시한 ‘분향소에서 위패와 영정 생략’과 ‘글씨 없는 검은 리본 착용’이 무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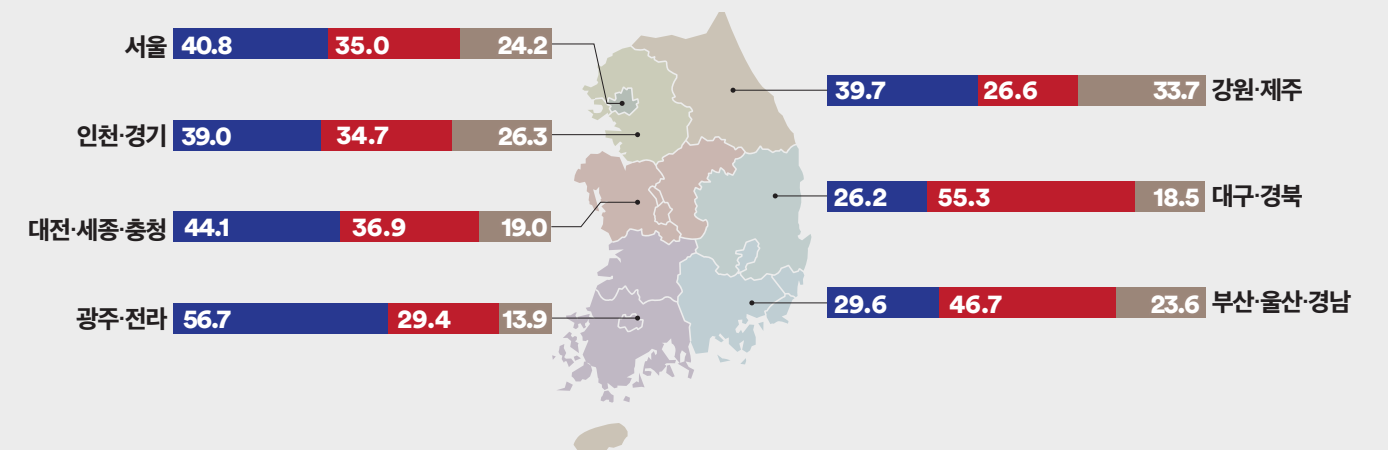
연령



성별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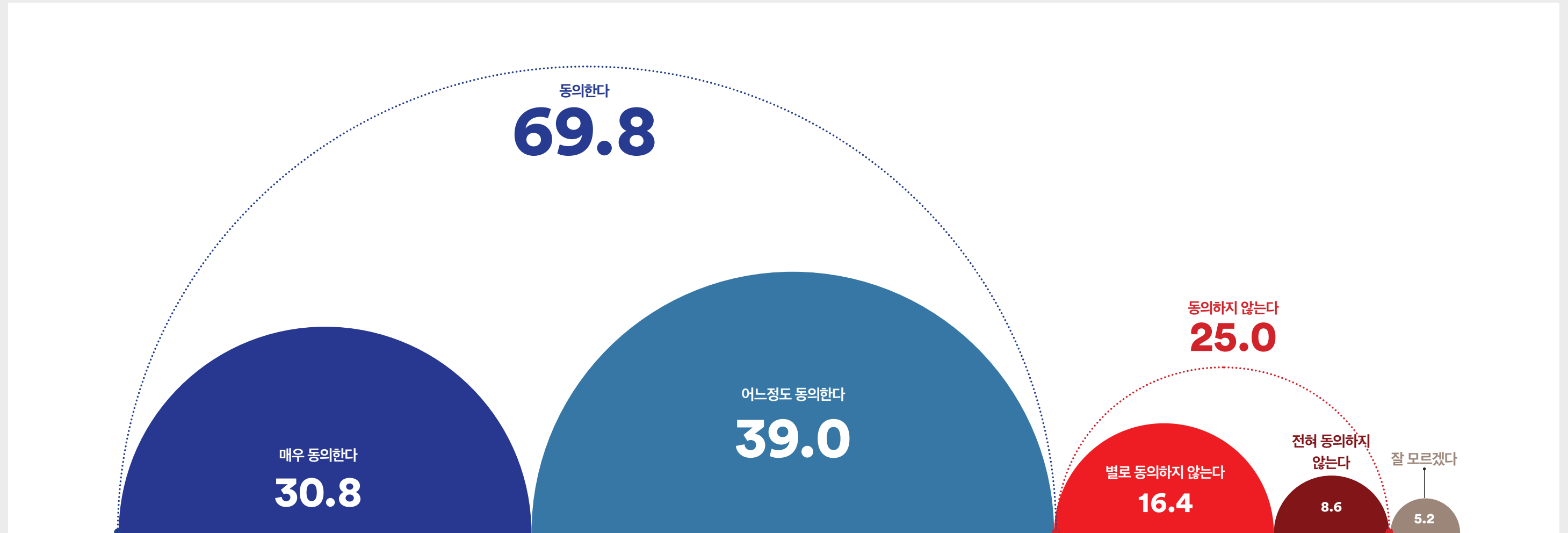
■ 관련 있다 ■ 관련 없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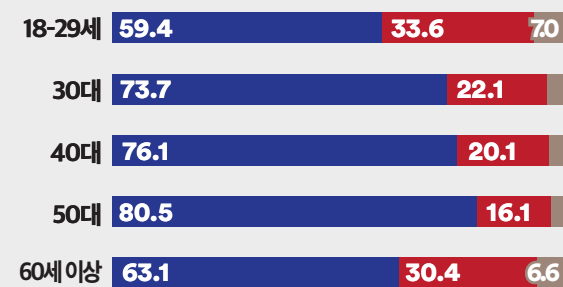
10.29 참사

대응: 유가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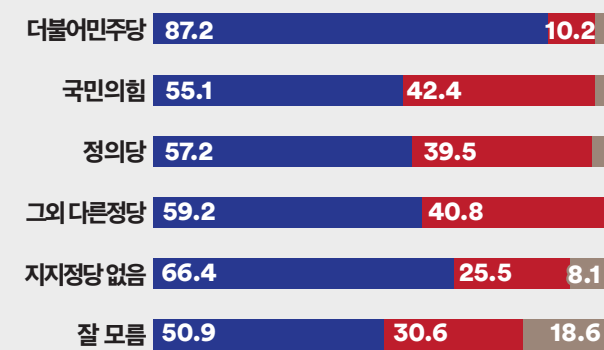
Q. 유가족들끼리의 위로와 연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공간 마련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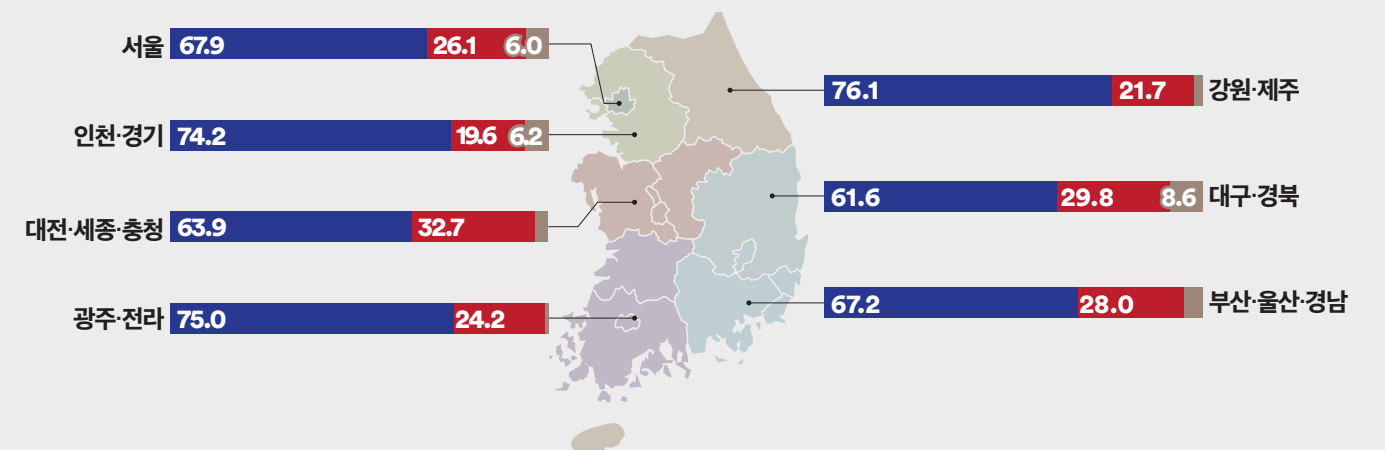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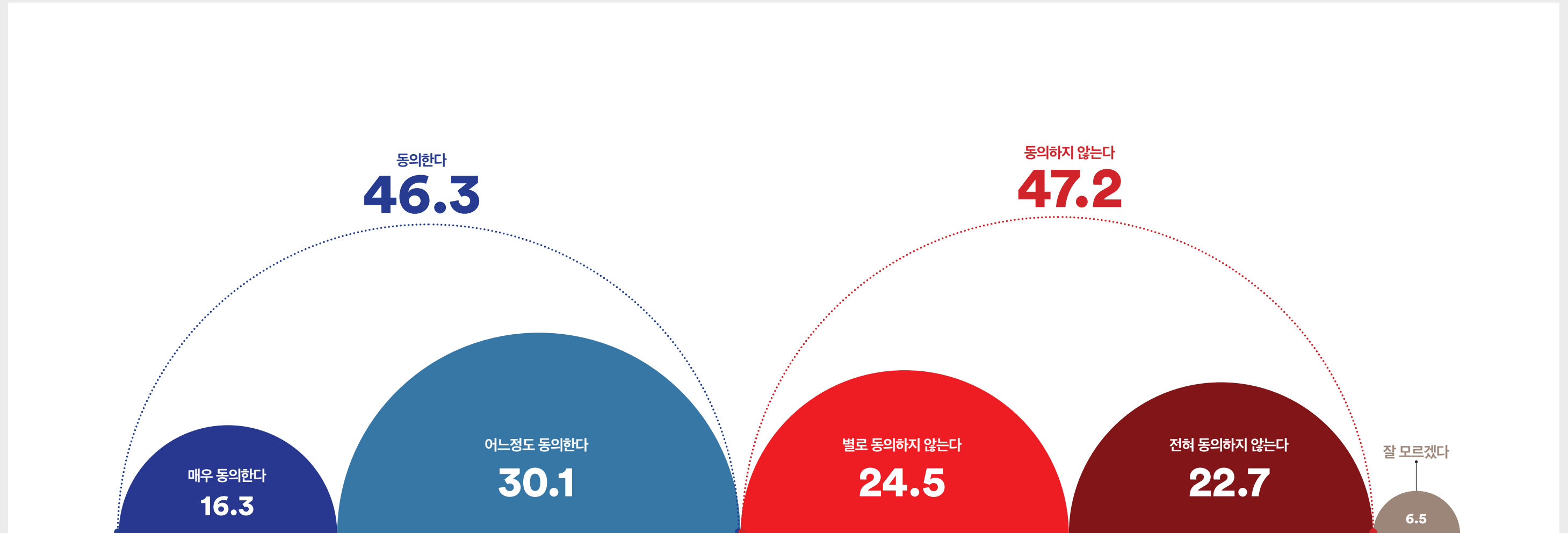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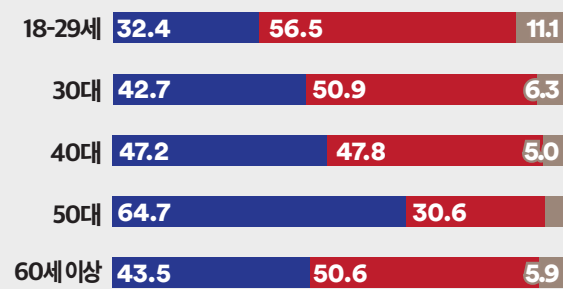
10.29 참사

대응: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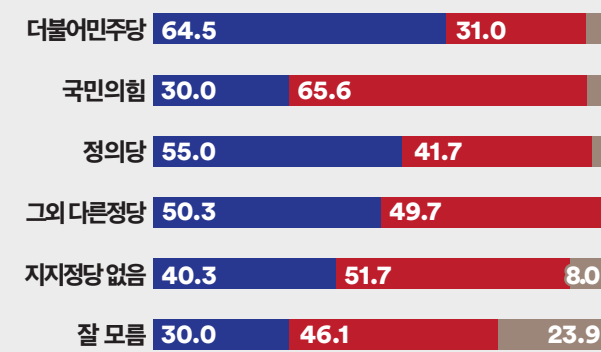
Q. 10.29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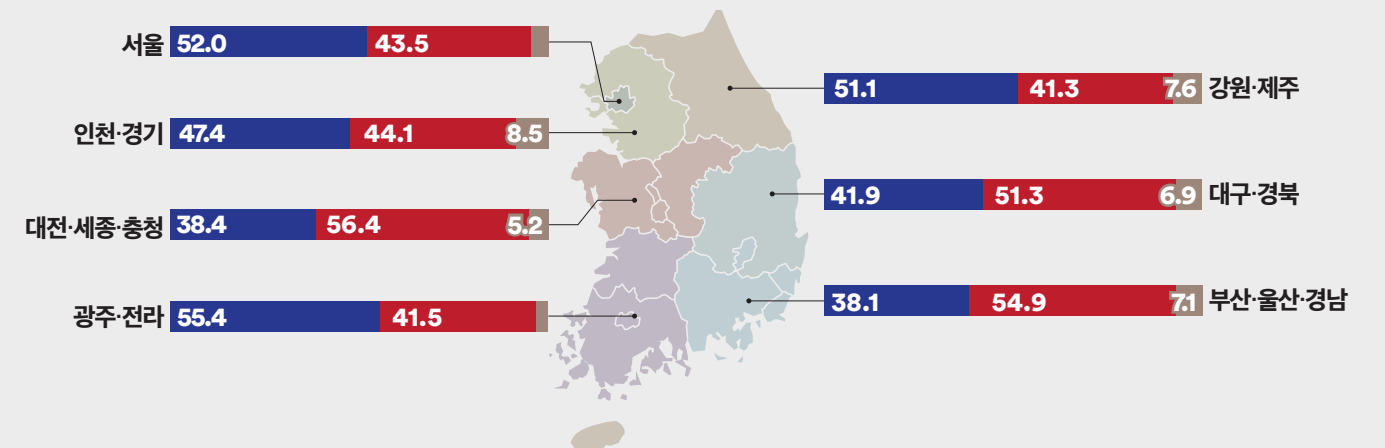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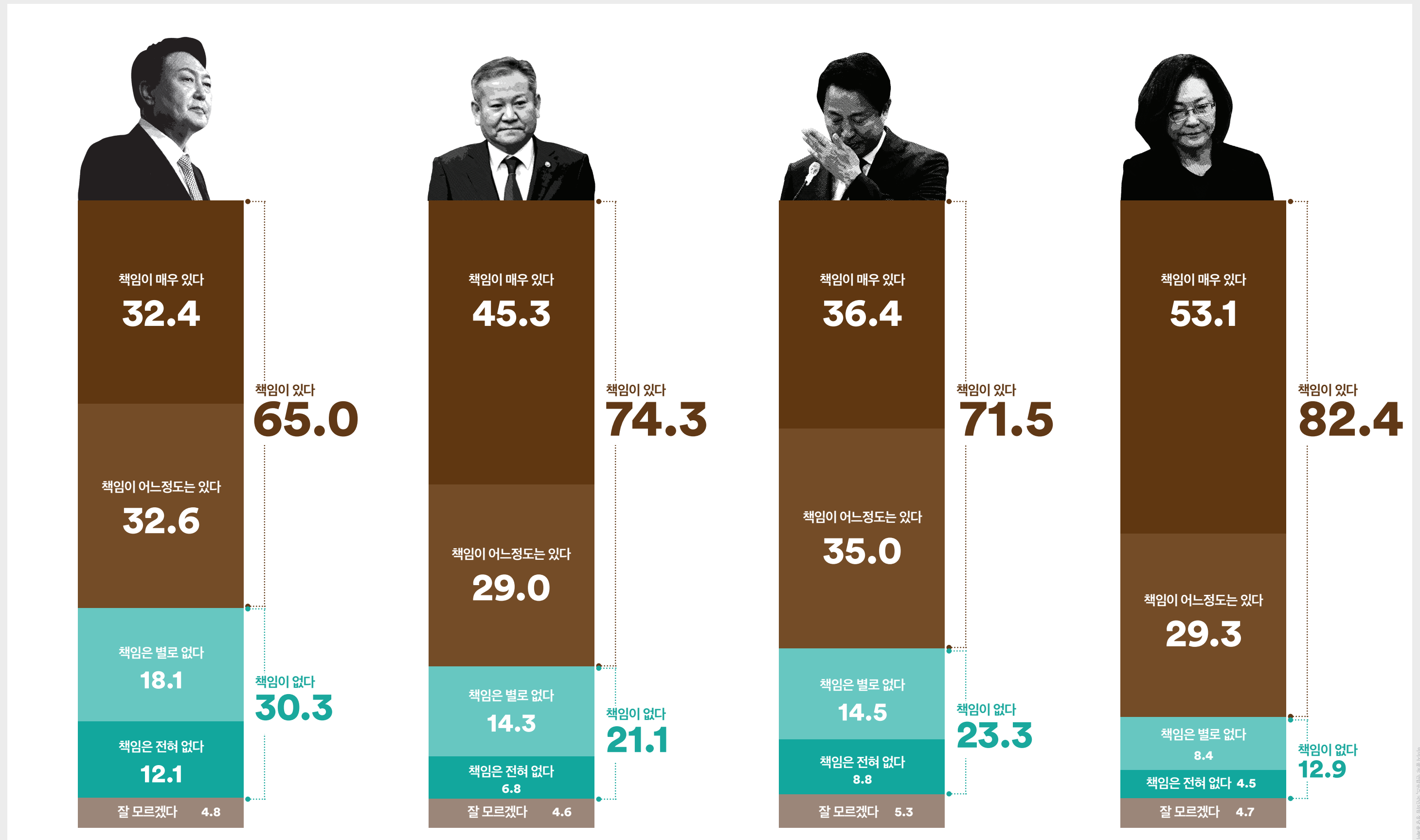


동의한다 (Blue) | 동의하지 않는다 (Red) | 모르겠다 (Grey)

10.29 참사

책임규명: 참사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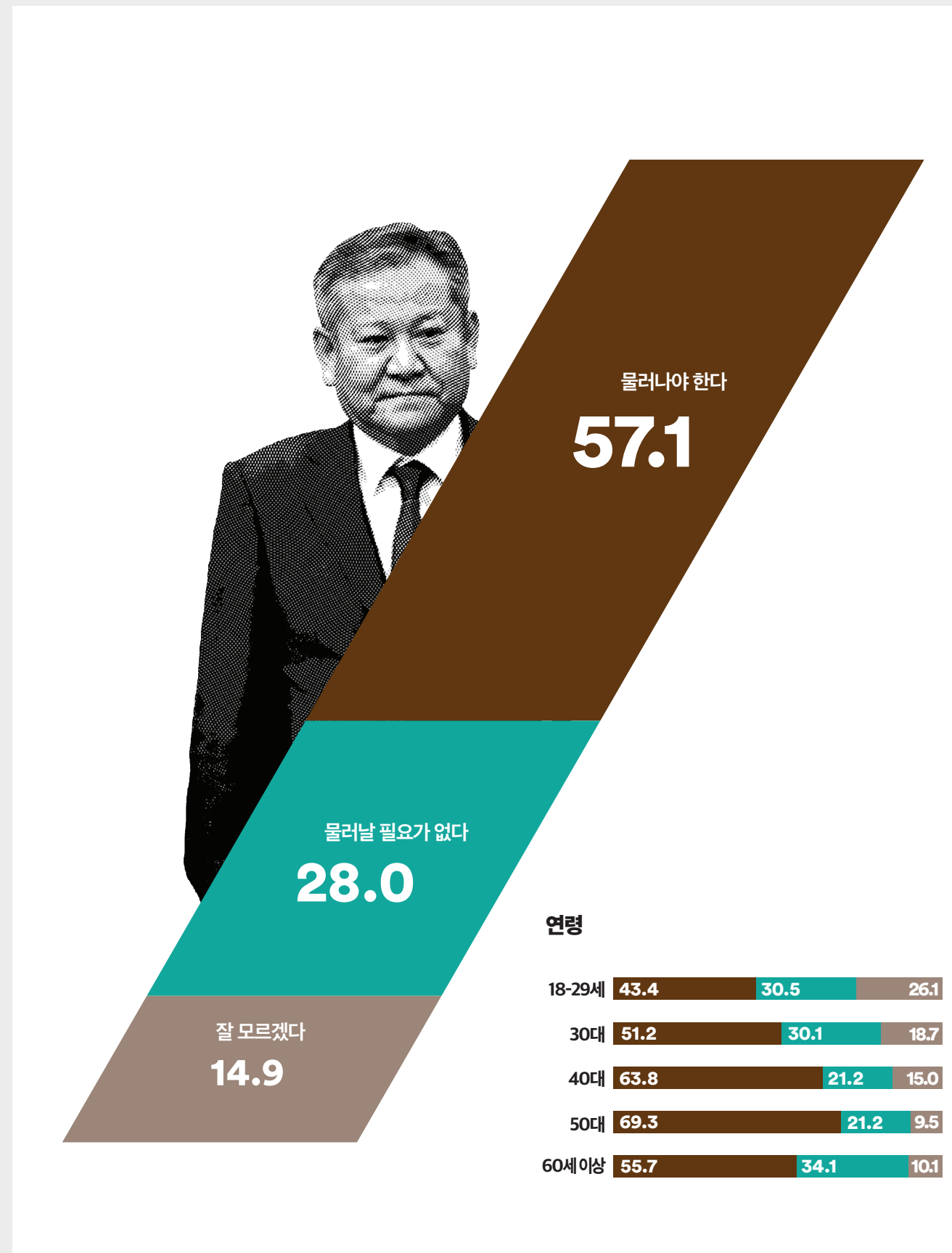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 · 이상민 행안부장관 · 오세훈 서울시장 ·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10.29 참사의 책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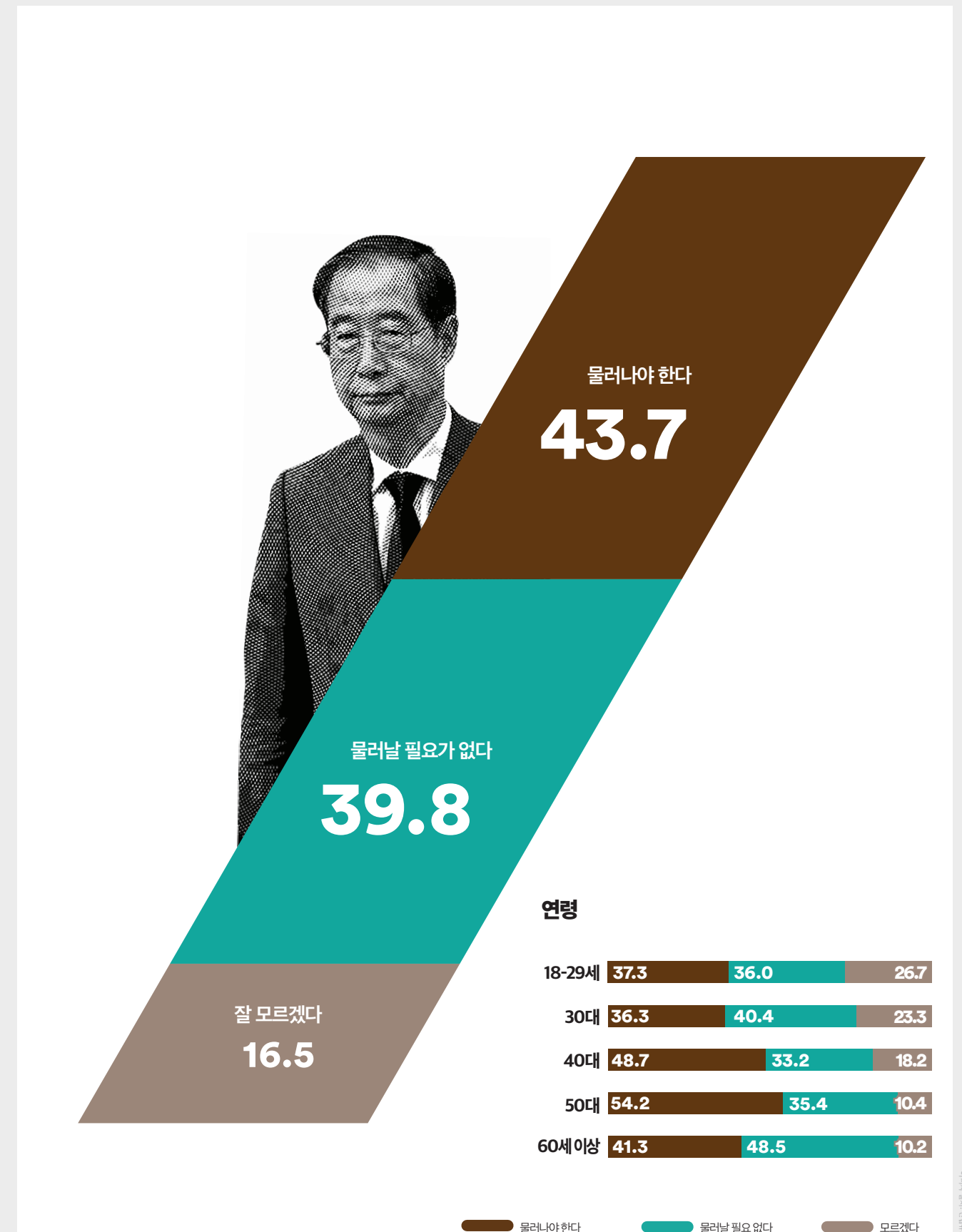
10.29 참사

책임규명: 참사책임자

Q.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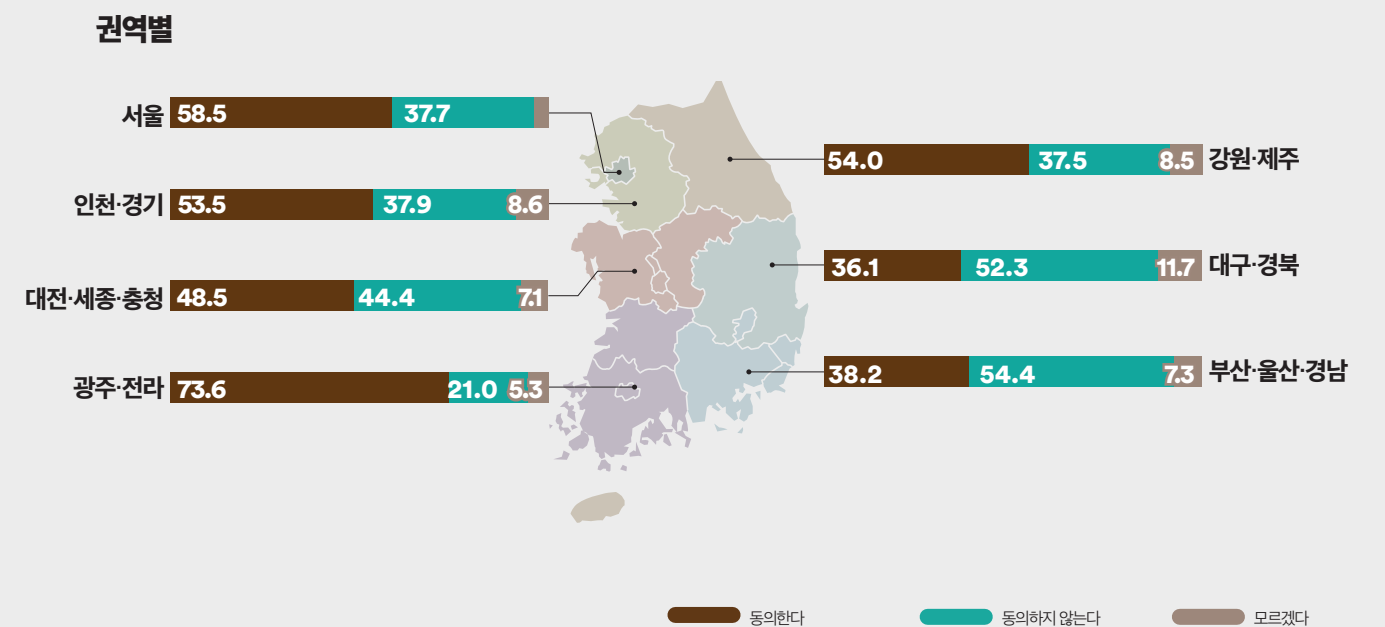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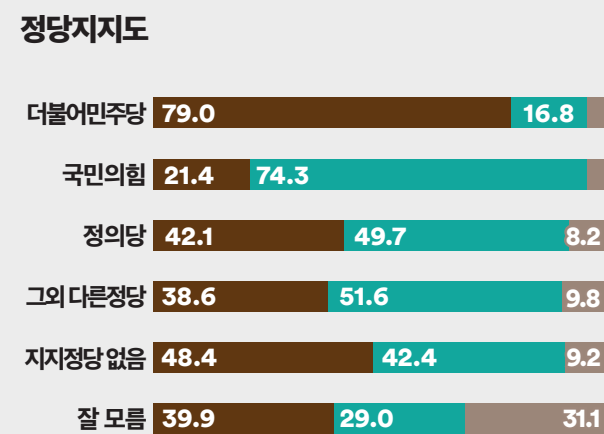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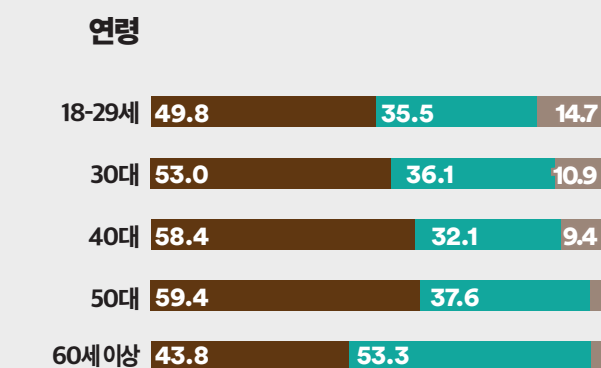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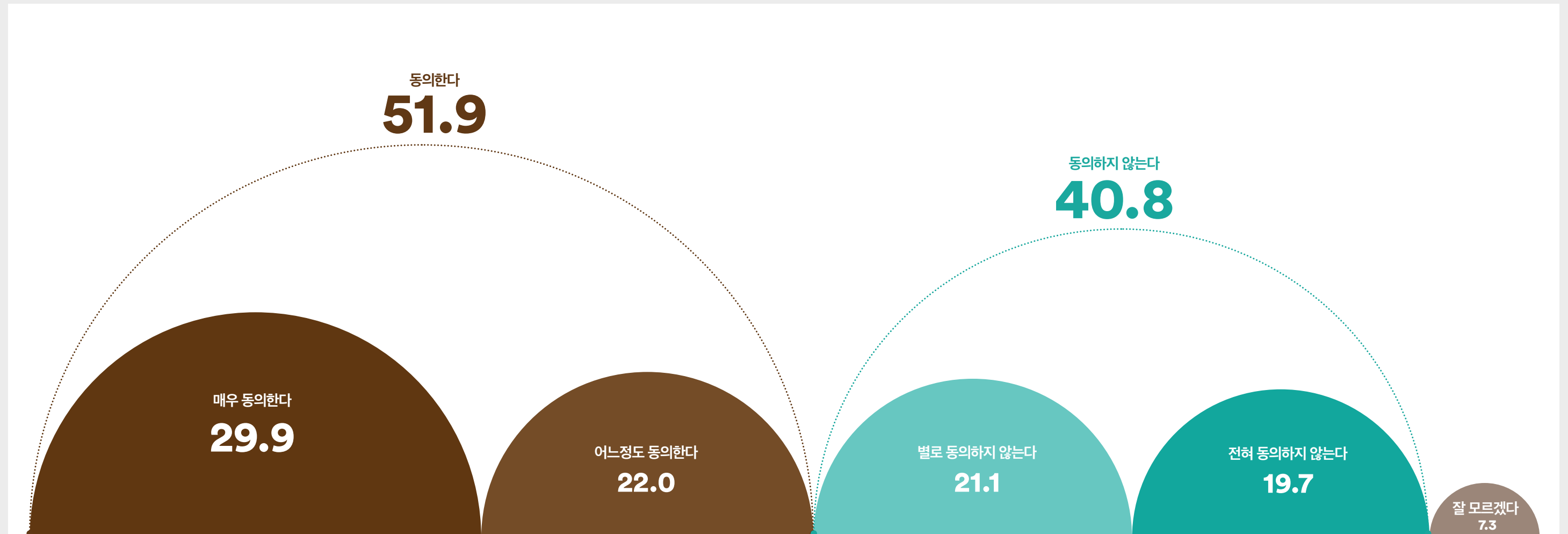
Q. 한덕수 국무총리가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29 참사

책임규명: 참사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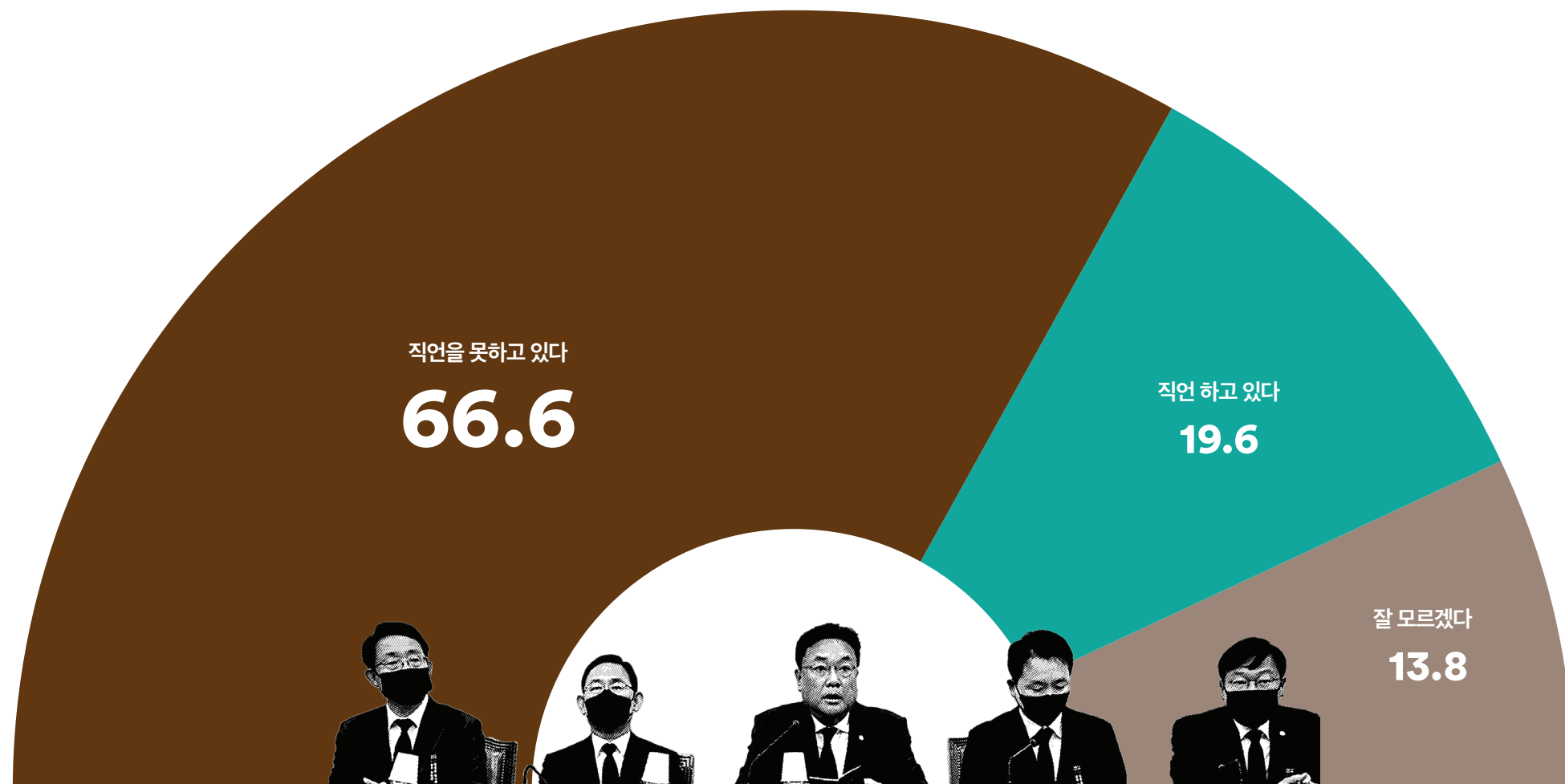
Q. 일각에서는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들이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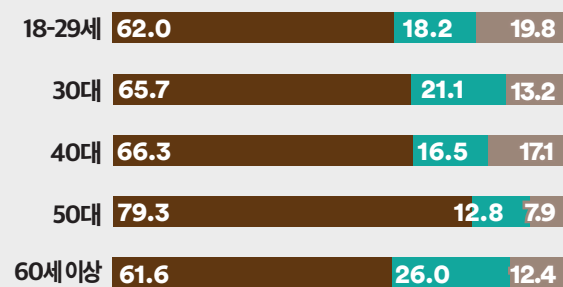
국정쇄신

여당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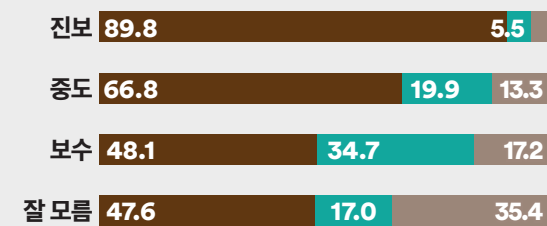
Q.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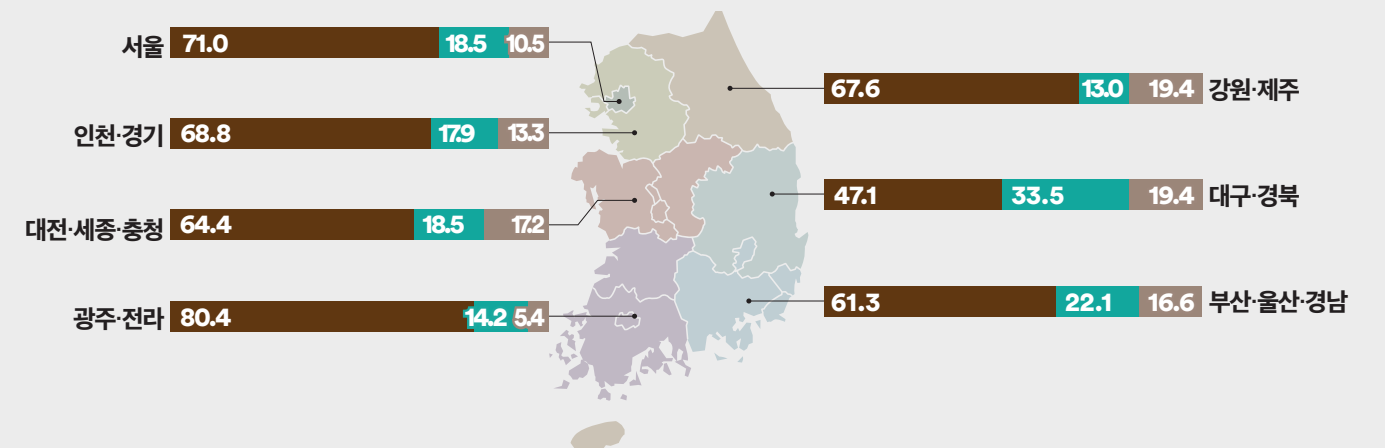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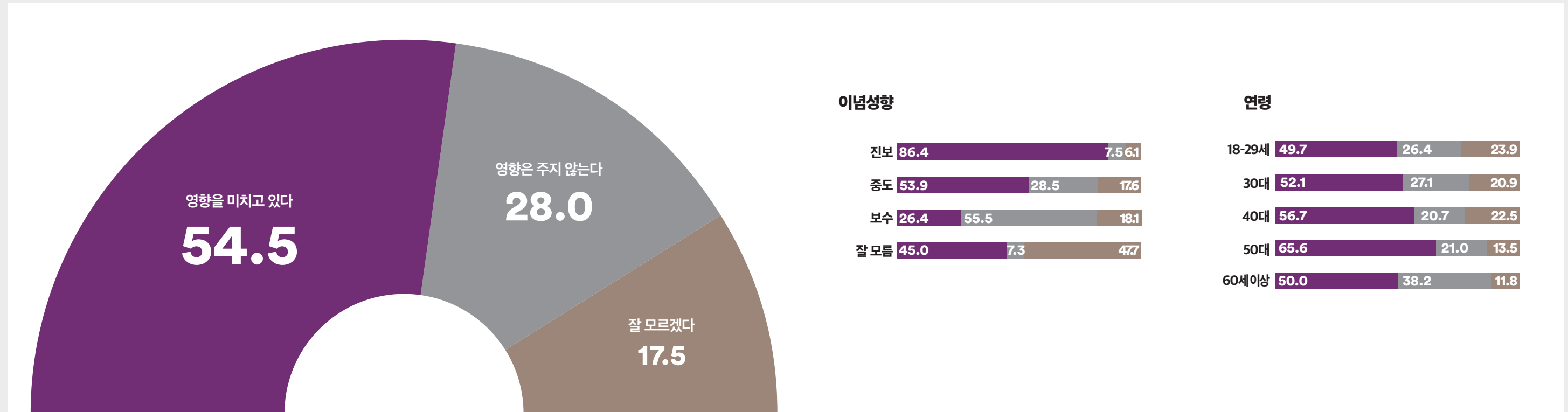


직언 못하고 있다 직언 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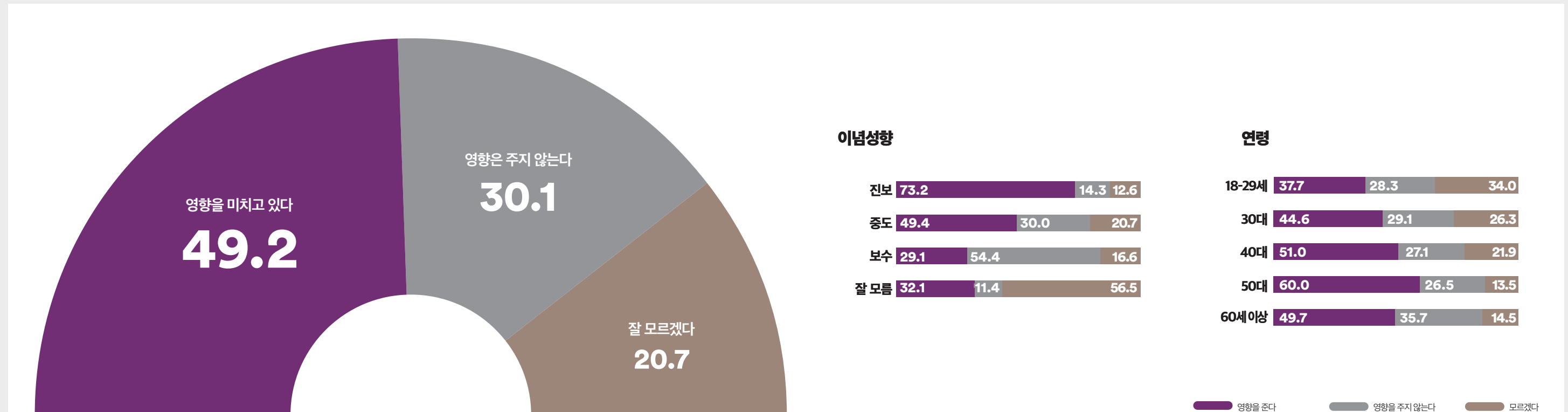
국정쇄신

국정운영 영향 요인

Q. 천공 등 무속인의 조언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Q. 극우성향의 유튜버 등 이념 편향성을 가진 집단의 주장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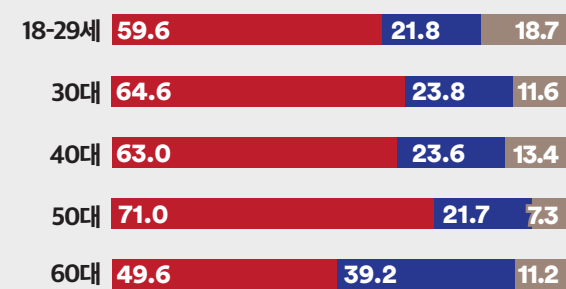
국정쇄신

대한민국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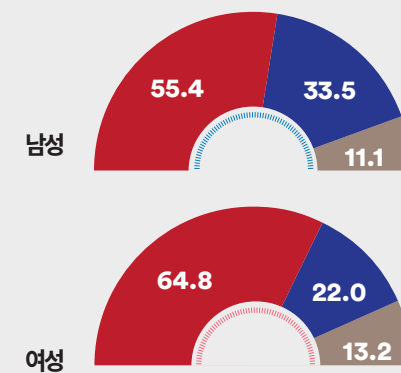
Q.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위상 또는 국격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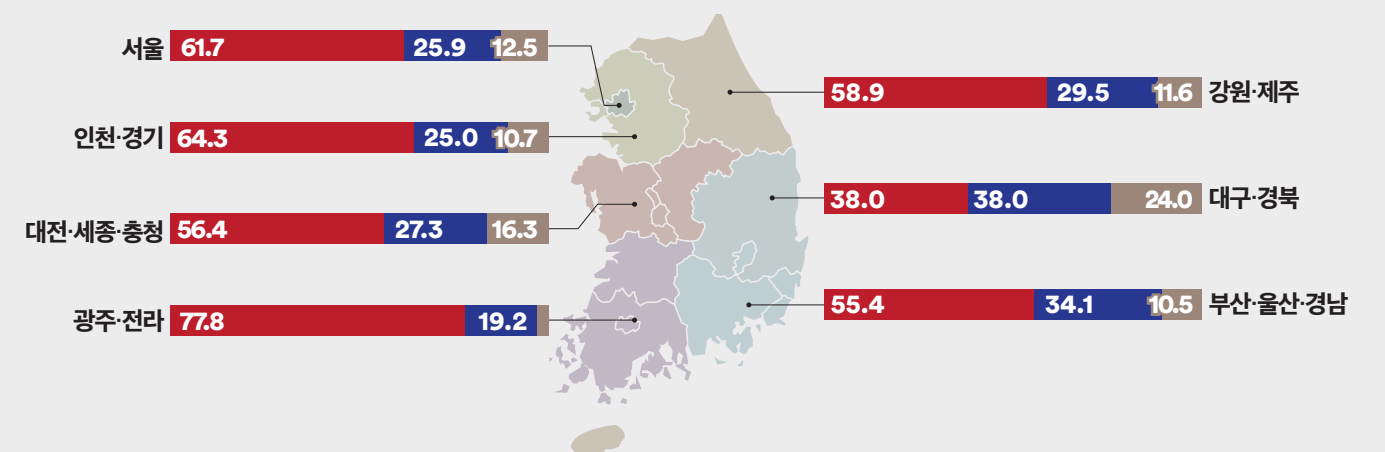
연령



성별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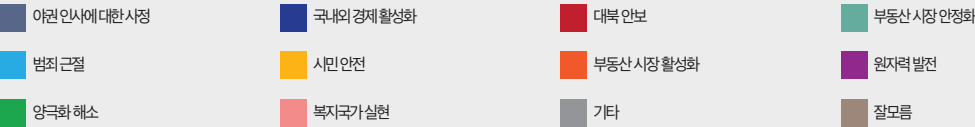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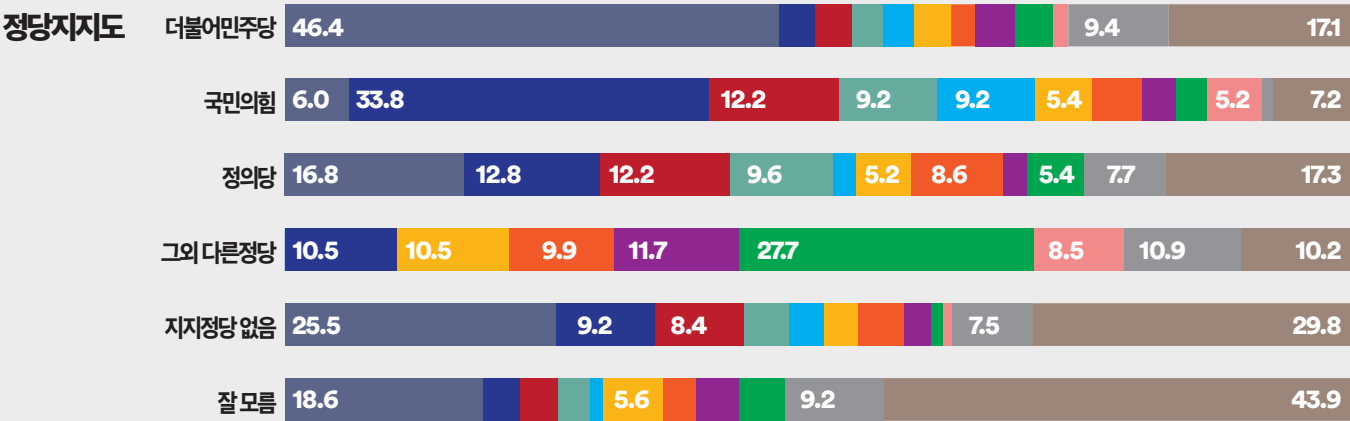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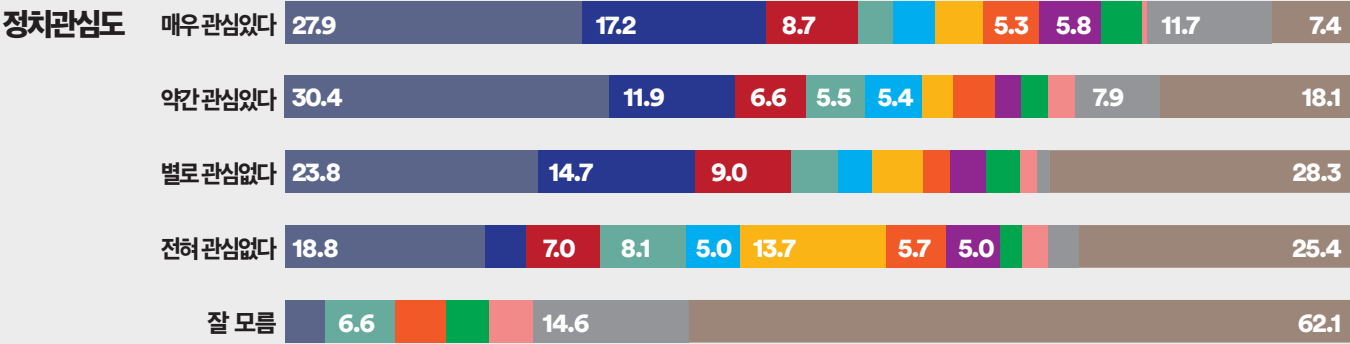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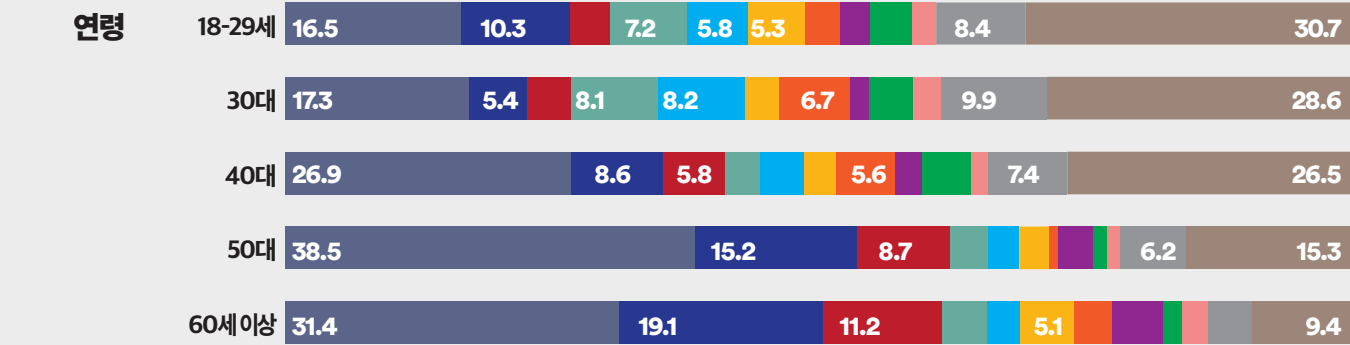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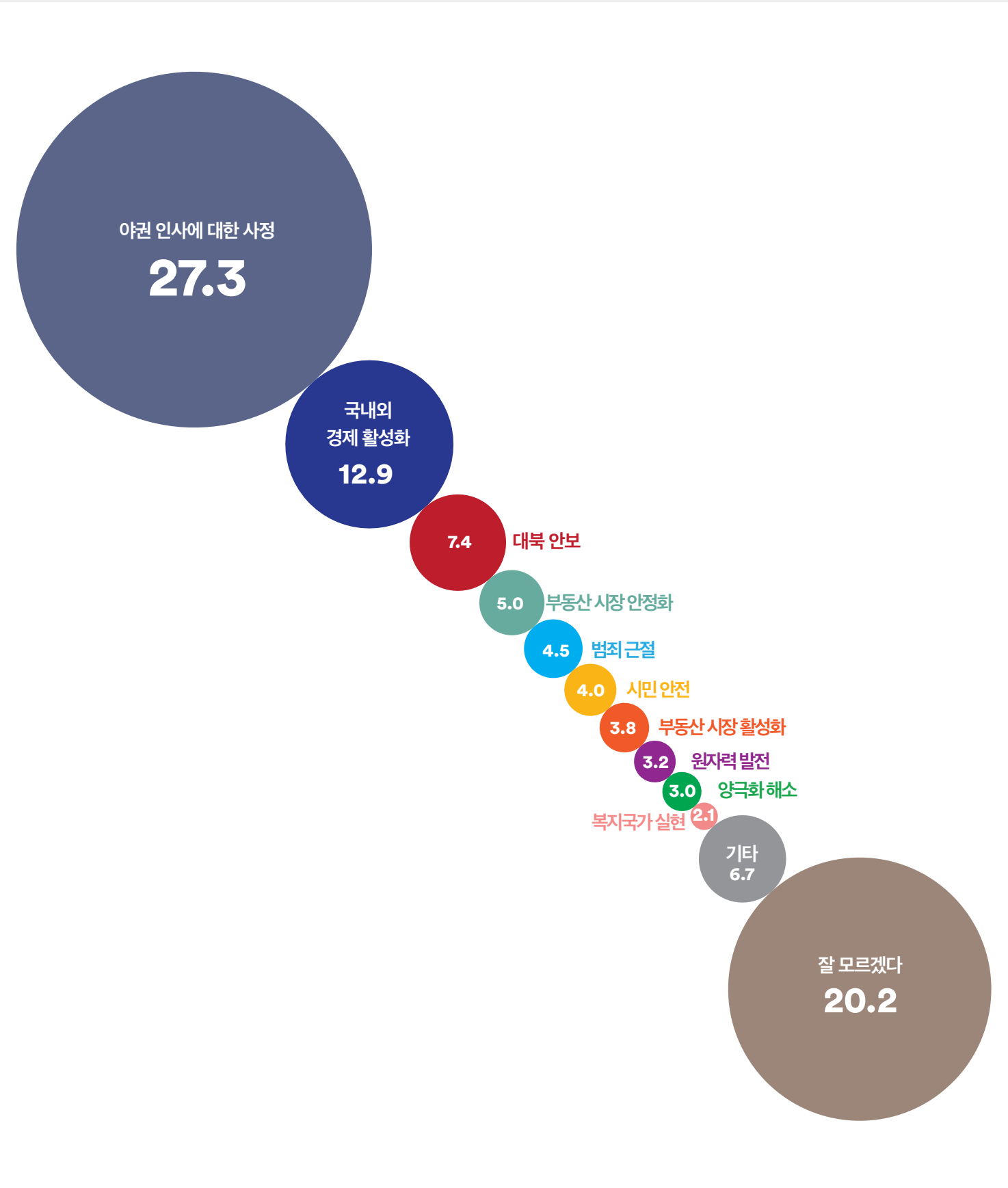


하락했다 하락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국정쇄신
대통령의 관심분야

Q. 윤 대통령이 다음 중 어떤 부분 또는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픈 문항 정리

10.29 참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

10.29 참사에 대한 심정

10.29참사에 대한 심정을 묻고 그 답을 정리했습니다.

애도의 마음,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해주신 응답
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닌 참사 원인을 분석한 의견과 국가가 해야 할 일
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 시스템의 부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소방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사 아닌 사고,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픈 문항 정리

10.29 참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슴이 아프다.
슬프다. 안타깝다.

답답하다.
괴롭다.

황당하다.
믿을 수 없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무섭고
불안하다.

무끄럽다.
한심하다.

무능한 국가,정부,정치인.
대통령의 무능.

책임회피.
정치적이용.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소방관의 명예 회복.

안전불감증.
국민의 낮은의식.

그냥 사고일뿐.



오픈 문항 정리

10.29 참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슴이 아프다.
슬프다. 안타깝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죽 같아서.

너무 마음이 슬프다.

젊은이들이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간것이.

많은 인파가 몰린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젊은 꽃들이
너무 안타깝다.

안타깝고 비통하다.

역장이 무너진다.

나자신과 같은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

젊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아픈 죽음을 당해야하는지
비통하고 슬픉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이 나라는 발전이 없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

답답하다.
괴롭다.

암담하다.
사회시스템이 붕괴되었다.

괴롭다.

참담하다. 아무런 힘이 없어 미안하다.

참혹하다.

이유 모를 눈물이나며 참담하다.
반복되는 참사와 젊은이들의 희생이 너무화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않으려는 모습이 소름끼친다.

비참한 심정이다.

황당하다.
믿을 수 없다.

어이가 없다.
그런일이 생긴다는 일이 있을수가 없다.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않는다.

충격적이다.

같은 나이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가게되어
더욱 믿어지지않는다.



오픈 문항 정리

10.29 참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

화가 난다.
우울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다.

허망한 죽음이다.

침통하고 슬프며, 정부 기관 대처에 화가 난다.

착잡하다.

비통하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무섭다.
불안하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든다.

참담하고 무섭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일이라는 생각.

참담하다.
사는게 불안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정부를 믿을수 없다. 책임전가만 한다.

부끄럽다.
한심하다.

태어남이 부끄럽다.

유구무언.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뭘니까.

한심한 정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맞나요?



오픈 문항 정리

10.29 참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

무능한 국가,정부,정치인.
대통령의 무능.

책임회피.
정치적이용.

관리소홀로 빚어진 인재다.

선진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참사임.

사리사욕만 신경쓴다.

정부의 무능력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일어난 일이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이며, 경호하느라 일어난 대참사.

이후 정부 대처가 정말 화난다.

나라의 안전이 없다. 분노가 치민다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 인력을 이태원으로 보내야했다.

경찰들의 안일한 대처가 울분을 토하게 만들.

무너진 대한민국.

국가에 의한 사고

경찰의 대처에 열받는다.

“이게 나라냐?” 2탄

예견된 참사이다.

책임자는 누구인가.

막을수있던 대참사.

참담하고 현 정부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재차 확인하게 돼서 짜증 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을 죽인 사건.

젊은 친구들이 국가의 무능함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도자 한사람 잘못으로 젊은 청년들이 사고를 당하였다.

정부의 국민보호 실패로 인한 참사.

터질게 터졌다.

아주 후진국의 참변, 참담하고 참담했고, 정치인들에게 실망했다.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제2의 세월호 참사.

정부의 국민보호 실패로 인한 참사, 매우 참담하다.



오픈 문항 정리

10.29 참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소방관의 명예 회복.

향후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희생자에게 애도를표하며 책임자에게는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될것임.

소방대원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조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진상 규명을 통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불감증.
국민의 낮은의식.

국민의 문화의식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가 싶음.

사회전체에 퍼진 안전불감증에 대한 황당함.

그냥 사고일뿐.

참사가 아니라 사고 입니다. 확실하게 개념 정리 하세요
젊은것들이남의 나라 문화에 지가 좋다고 자발적으로 가서
사고가 난 것이지 참사는 절대 아닙니다.

지들끼리 놀러갔는데 왜 보상을하는가.

우연한 사고일뿐.

그 누구 탓도 아니다.



제16차 정례여론조사 ARS+WEB 보고서

www.flowerresearch.com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